

碩士學位論文

孝倫理의 現代的 實踐을 爲한 教育方案 研究

- 初等學生을 中心으로 -

指導教授 安 昶 範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民倫理教育專攻

韓 燮

2001年 8月

孝倫理의 現代的 實踐을 爲한 教育方案 研究

- 初等學生을 中心으로 -

指導教授 安 昶 範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1年 4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民倫理教育專攻

提出者 韓 燮

韓燮의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2001年 7月 日

審査委員長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국문 초록>

孝倫理의 現代的 實踐을 爲한 教育方案 研究

- 初等學生을 中心으로 -

韓 燮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民倫理專攻

指導教授 安 昶 範

본 연구는 현대 한국사회의 제반 도덕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청소년들의 효윤리를 생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제 하에 효윤리의 현대적 실천을 위하여 그것이 현대적 의의를 도출하고 또 그 실천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요인들을 찾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가정·학교·사회에서의 바람직한 교육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현대사회의 도덕적 현실과 연구의 필요성, 목적을 밝히고 효윤리의 본질과 현대적 의의를 전통적 효의 개념과 효윤리의 내용, 효윤리의 현대적 의의를 이론적으로 고찰했으며, 다음으로 효윤리의 현대적 실천에 있어서의 제 문제에 대해 현대사회의 특성과 효 실천의 문제, 전통적 효윤리와 현대 윤리와의 갈등, 초등학교의 효의식과 문제 등을 살피고 효윤리 실천을 위한 교육방안을 가정, 학교, 사회로 나누어 실천과제와 해결방안을 도출하여 결론적으로 본 연구 내용을 요약하고 결론을 제시하였다.

현대 학생들의 효윤리의 실천을 위한 교육방안을 가정, 학교, 사회교육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첫째, 가정에서는 전통적인 효윤리의 실천을 강요하기보다는 현대적이고 합리적인 효윤리를 정립하여 실천하도록 하며 부모가 제반 가정 여건을 조성하여 자녀들과 항상 대화하고 접촉하면서 참사랑으로 대하고 숭순수범하여 본모기를 보여줌으로써 효윤리에 대한 교육이 부단히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학교에서는 지식위주의 교육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교육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참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자기의 소질을 개발하고 인간답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윤리관을 심어주어야 하며 특히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에도 효 관련 교육시간이 적으므로 모든 교사가 수시 교육을 통하여 지도되어야 하고 교사도 그를 위해서 부단한 연수가 필요하다. 그밖에도 야영 및 수련활동, 청소년활동, 종교활동에 참여시켜 바람직한 가치관 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등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사회에서는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보낼 수 있는 시설, 장소, 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조성하고 마련해 줌으로써 청소년들의 비행화를 예방하고 현장지도를 할 수 있는 어른들의 용기와 모범을 보이는 본모기가 생활화되어야 한다.

효윤리의 현대적 실천을 위한 교육방안에 대한 본 연구에서 얻은 결론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해본다.

첫째, 효의 실행 주체는 청소년이지만 그것을 제대로 실천하느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부모와 교사이므로 부모와 교사는 모범적인 행동으로 청소년의 본모기가 되어야 한다.

둘째, 청소년들에게 효도의 개념을 정립시키고 실천을 위한 지속적인 효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현대사회에서의 효는 전통적인 사상에 기초하여 현대사회 감각에 알맞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넷째, 현대사회에서의 효 교육은 가정, 학교, 사회가 상호 협동적으로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사회질서가 문란한 현대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효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 본 논문은 2001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목 차

I. 서 론	1
II. 효윤리의 본질과 현대적 의의	5
1. 전통적 효의 개념	5
2. 효윤리의 내용	9
3. 효윤리의 현대적 의의	18
III. 효윤리의 현대적 실천에 있어서의 제 문제	28
1. 현대사회의 특성과 효 실천의 문제	28
2. 전통적 효윤리와 현대 윤리와의 갈등	31
3. 초등학생 효의식에 있어서의 문제	40
IV. 효윤리 실천을 위한 교육방안	46
1. 가정에서의 효 교육	46
2. 학교에서의 효 교육	55
3. 사회에서의 효 교육	64
V. 결 론	69
참고문헌	74
〈Abstract〉	77

I. 서론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훌륭한 문화와 전통을 가진 것을 자랑으로 여겨왔으며 東方禮儀之國으로서 우리 민족은 미풍양속을 삶의 덕목으로 생각하며 생활 속에서 실천하여 왔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급속한 사회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달로 물질적 풍요와 생활수준이 향상은 되었으나 이기주의적 사고방식으로 빠지고 서구문화의 무비판적 유입으로 전통적 가치관이 해체되고 상실되는 등 전반적으로 가치관 혼란의 초래되어 도덕적 혼돈의 시대를 맞고 있다. 또한 가정이 핵가족화로 개인간, 가족간, 당위적인 도덕윤리관이 붕괴되고 새로운 윤리에 대한 가치체계가 정립되지 않아 청소년문제 등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현상과 우리가 처한 현실적 상황에서의 문제점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내용에서 공감대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의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급속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성장주도의 정책과 함께 풍요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물질적 풍요는 이루어 냈지만 물질문명에 예속되어 정신적 빈곤을 낳았으며 고도의 분업화, 전문화된 조직사회로의 변천은 인격적 접촉의 기회 부족으로 인하여 인간사이의 풍부한 감정과 따뜻한 인정의 교류를 약화시켰다. 또한 생산체제의 다양화와 인구의 집중화는 인간의 소외현상을 초래하였고 외래문화의 유입은 전통적 가치관의 갈등을 겪게 되었다.

한편 현대사회의 핵가족화 현상은 전통적으로 권위와 위엄, 경륜과 지혜를 가지고 새로운 세대에서 신뢰와 사랑, 용기를 심어 주면서 올바른 생활 습관의 형성과 예의 범절을 교육해 온 어른들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만들었고¹⁾ 여성의 사회 진출, 이혼율 증가 등은 가정의 기능을 점점 약화시켜 가정에서 담당해야 할 교육적

1) 서성욱 외(1985), 「경로·효친지도 자료집」, 대한교육연합회, p.9.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현상이 확산되어 도덕적 불감증의 심화와 함께 자라나는 학생들의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는 청소년을 위한 놀이 공간이나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지 못하고 있으며 각종 마스크와 인쇄, 영상물들의 상업주의적 선전과 선정적인 내용들이 여과 없이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끼쳐 물질 만능의 쾌락주의와 빛나간 개인주의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많은 청소년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상실되어 가는 도덕성을 회복시키고 보편적이고 한국적인 특성을 갖는 가치관을 가지고 오늘날을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백행의 근본'인 효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한국의 전통 윤리사상의 핵인 효윤리는 인간의 선한 본성과 가족적 인간관계를 토대로 하여 개인적으로는 도덕적 인격체가 되고 사회적으로는 인정에 기반을 둔 禮의 질서의 구현을 추구하므로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인간성의 상실, 물질위주의 경쟁으로 인한 사회적 병리현상 등,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오랫동안 우리에게 의해 전승되어 온 것이어서 쉽게 생활화할 수 있고 새로운 사상과의 결합을 통해 현대사회의 윤리사상을 정립하는 토대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효는 자식된 자의 마땅한 도리로서 부모를 공경 봉사하는 부모에 대한 사랑이다. 효는 전통사회에서 개인과 사회의 근본적 가치이며 이것은 오늘날에도 중요한 가치로 작용하고 있는 바, 효는 광범위하고도 근본적인 사회적 규범과 합치되는 우리의 중요한 가치이며 이 규범에 준거해서 부모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행동의 바르게 변화되어 가는 것이다.²⁾

효의 실천원리로 '첫째,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잘 닦고 감히 훼손시키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라 하였고 둘째,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며 셋째, 나라에 충성하는 것이며 넷째, 뜻을 세우고 正義, 人道를 행하는 것(立身行道)³⁾이라고 하고 있다. 그 만

2) 한국정신문화원(1989), 「전통윤리의 현대적 조명」, 천풍인쇄주식회사, p.120.

3) 안창범(1986), 「경로효친과 학교교육」, 「주임강좌」, 한국교육생산성연구소, p.25.

큼 효윤리의 실천은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한편 전통적인 가치라는 것은 그 민족의 주체적인 발전의 역량이며 민족 전체를 한 공동체로 묶는 국가의 힘이라고 할 수 있다. 분명히 효는 우리의 전통 가치 중 가장 으뜸의 덕목이라고 할 수 있다. 효의 본질은 경애정신과 인간존중의 정신이고 그것은 인간형성의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건이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효는 모든 行動律의 기본이 된다. 따라서 효는 우리에게 「사람됨의 길」과 인간관계의 방법론을 제시해 주는 도덕률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⁴⁾

그러나 학교는 그런 대로 효교육이 이루어져 왔으며 최근에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도 학생들의 재능과 잠재력 계발, 지혜를 넓히는 교육을 하지 못하고, 오직 대학 진학을 위해 지식의 주입만을 강요해서 학생들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윤리를 익히지 못하고 성적위주의 지나친 경쟁에 몰입하여 전인적 인간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되었다. 또한 가정이나 사회에서도 도덕적 해이와 무관심으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효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우리의 문화와 규범과 思惟가 담긴 효 사상을 현대적 입장에서 재정립하여 우리의 생활윤리로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시대적 상황에 이르렀으며 모든 사람들이 여러 분야에서 공동체 의식과 전통적 가치 속의 주체적 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자아를 완성시켜 나가는데 원동력이 될 수 있는 확고한 가치관으로서의 효를 찾아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 가정과 학교, 사회는 이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전통가치 중 으뜸인 효를 현대적으로 조명해 보고 우리의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효의 실천과 효교육의 제 문제를 살펴보고 효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여 보고 그 실천방안을 강구해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는 현대 한국사회의 제반 도덕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청소년들의 효윤리를 생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제 하에 효윤리의 현대적 실천을 위하여 그것이 현대적 의의를 도출하고 또 그 실천에 있어서 문제가 되

4) 孫仁銖(1992), 「한국인의 가치관」, 문음사, p.146.

는 요인들을 찾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가정·학교·사회에서의 바람직한 교육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내용은 먼저 현대사회의 도덕적 현실과 연구의 필요성, 목적을 밝히고 효윤리의 본질과 현대적 의의를 전통적 효의 개념과 효윤리의 내용, 효윤리의 현대적 의의를 이론적으로 고찰했으며, 다음으로 효윤리의 현대적 실천에 있어서의 재문제에 대해 현대사회의 특성과 효 실천의 문제, 전통적 효윤리와 현대 윤리와의 갈등, 초등학생의 효의식과 문제 등을 살펴보고 효윤리 실천을 위한 교육방안을 가정, 학교, 사회로 나누어 실천과제와 해결방안을 도출하여 결론적으로 본 연구 내용을 요약하고 결론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여기에 기술한 전통적 효사상은 유교개념을 중심으로 고찰하였으며 孝經, 論語, 擊蒙要訣 등 중요한 원자료의 인용은 譯解本을 이용하되 원문자체의 의미를 살리기에 충실하려고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1차 자료를 직접 연구할 수 없는 내용은 선행연구와 전문학자의 저서의 내용을 원용하였다.

II. 효윤리의 본질과 현대적 의의

1. 전통적 효의 개념

동양에서의 효도의 '道'라는 의미는 이성, 정신의 의미로서 움직임이 있는 길이요 생각과 말, 행동을 하늘의 명에 따라 발휘하는 길이요, 자연의 이치와 사람에게서의 이치가 합치되었을 때 올바른 '도'라고 보아 왔다. 즉 육체적, 감각적 욕구에 따른 생각과 행동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섭리에 따른 인간의 행동과 생각을 의미하는 것이다.⁵⁾

「효도」라는 말이 기록상 처음 쓰여지는 「漢書 文帝紀」의 “永思孝道”라는 문구라고 한다.⁶⁾ 효를 字義로 풀면 '老'자의 약자 '耂'와 '子'의 결합으로서 자녀가 노친을 받들어 모심을 의미하고 語義로 말하면 부모를 善事하는 덕행을 의미한다.⁷⁾ 여기서 보면 효의 대상은 살아있는 부모이나 더 나아가 조상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인간이 역사적 존재로서의 자각을 달성하는 일'로 규정이 되는 것이다.⁸⁾ 게다가 친척과 이웃 즉 사회적 웃어른으로 확대됨으로써 사회적 존재인 인간의 당연한 도리가 된다.

효 사상의 문헌적 기록으로 최초라 할 수 있는 것은 「書經」에 나오는 五典이다. 이 五典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다. 하나는 주희의 해석에 따른 五常說로서 맹자의 오륜을 가리키며 다른 설은 바로 “아비는 親하고 어머니는 慈愛롭고 자식은 孝道하고 형은 友愛하고 아우는 恭遜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후자의 내용은 孝·悌·慈라는 가족 윤리의 근간이 된다.⁹⁾

5) 황하택(1984), 「삶과 사랑과 한국인」, 종로서적, p.99.

6) 權相老(1961), 「古事成語 辭典」, 학원사, p.1210.

7) 안창범(1978), “한국 충효사상의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p.8.

8) 최근덕(1978), 「유학강의」, 성균관 출판사, p.34.

孝經의 開宗明 誼章에서 「효라는 것은 덕의 근본이며 가르침이 생겨나는 바탕인 것이다. 사람의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도를 행하여 후세에까지 이름을 드날림으로써 부모님도 드러나게 하는 것이 효의 끝맺음인 것이다. 효라는 것은 아버이를 섬기는 데서 시작하여 다음으로 임금을 섬기고 끝으로 입신양명을 하는 것이다.」¹⁰⁾ 여기서 효는 至德要道로서 덕의 근본임과 동시에 모든 교육의 원천이라고 전제하고 자신의 심신 전체를 잘 보호 육성하여 도를 행하고 다시 효를 4등분하여

첫째, 身體 髮膚不敢毀傷하는 것.

둘째, 事親하는 것.

셋째, 事君하는 것.

넷째, 立身行道 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¹¹⁾

그리고 2장에서 5장까지 다시 5등분하여

첫째, 최고의 효로 德教를 천하게 베풀어 온 백성을 감화시킴으로써 정치와 종교의 근본이 되는 天子의 효,

둘째, 몸을 근신하고 社稷을 보호하며 백성을 화합하게 하는 諸侯의 효,

셋째, 법도에 맞는 생활을 하며 宗廟를 지키는 丈夫의 효,

넷째, 忠順한 마음으로 윗사람을 섬기며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는 선비의 효,

다섯째, 최하위의 효로서 天地運行的 혜택을 입고 謹身 節用하여 부모를 봉양하는 서민의 효를 들고 있다.¹²⁾

논어에서의 효는 부모님을 맛있는 음식으로 봉양하는 물질적인 면보다는 정신적인 면을 더 중요시 한 것을 볼 수 있다. 제자 子夏가 효에 대하여 묻자 공자는 “어려운 것은 어떤 낮빛을 하고 섬기는 가에 달렸다. 일이야 젊은이가 하는 것이고 또 맛있는 음식이야 노인께 드리는 것이 정한 이치 일진데 이것으로 효라고 하기에는 부족하다. 거기에 참뜻이 담겨져 있지 않는다면 효라고 할 수 없다.”라고 대답했다.

9)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1),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웅진출판주식회사, p.638.

10) 김학주 역(1986), 「충경·효경」, 명문당, p.132.

11) 황하택(1984), 전제서, p.99.

12) 孝經 : 天子章 諸侯章 卿大夫章 士章 庶人章.

子夏의 마음은 정직하나 부드러운 정서면이 모자람을 아신 공자께서는 부드러운 정서 즉 화기 띤 얼굴로 부모를 대하여 함을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공자는

첫째, 효의 본유 관념으로서 공경하는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 봉양하는 일 뿐만이 아니라 공경하는 마음이 관건이 되며 웃어른에 대한 예절로는 얼굴빛, 즉 존경하는 태도가 문제라고 하였다.

둘째, 부모에게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효경에서 “우리의 신체발부 곧 정신과 육체, 털과 피부는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니 감히 훼손할 수 없음이 효의 비릇이니라”라고 한데서 분명하게 표현되고 있다.

셋째, 효는 孔子에 의하면 사후에까지 확산된 개념이다. 즉 “살아 계실 때도 예로서 섬기고, 장례도 예로서 치르고, 제사도 예로써 모시라”하였다.

孟子는 공자의 효 사상을 유가의 중심사상으로 굳게 다져 놓았다. 효를 ‘百行的根本’으로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효자의 지극한 것으로는 아버이를 존경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고 아버이를 존경하는 것의 지극함은 천하를 가지고 봉양하는 것보다 더 지극한 것이 없다.”¹³⁾라고 하여 제왕의 大孝를 말함과 동시에 입신양명을 효의 중심요소로 부각시켰다. 또한 맹자가 지시하는 불효란

첫째, 게을러서 생업에 태만하고 부모를 공양하는 일에 소홀히 하는 행위

둘째, 도박이나 술을 좋아하여 건강을 해치고 가산을 탕진하는 행위

셋째, 돈만 알고 처자식만을 좋아하고 부모를 돌 볼 줄 모르는 행위

넷째, 눈과 귀의 감각적인 만족만을 채우기 위하여 부모까지 욕되게 하는 행위

다섯째, 이성을 잃고 싸움질이나 좋아하고 성질이 사나워서 부모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들고 있다.¹⁴⁾ 즉 생활에 최선을 다하지 못해 굶주리거나 향락에 도취되어 가정, 자신을 돌봄이 부족한 사람은 모두 불효자라 함으로써 윤리·도덕적 인간의 행실을 중요시했음을 볼 수 있다.

13) 孟子, 萬章章句 上 : 孝子之至 莫大乎尊親 尊親之至 莫大乎以天下養 爲天子父 尊之至也 以天下養 養之至也.

14) 황하택(1984), 전계서, p.101.

朱子는 유교의 실천 윤리인 3강 5륜 가운데 부자유친의 '친'에 관해 부모는 자식에게 자애로움을 다하고 자식은 부모에 대하여 효도하는 것이라 하여 「親是父慈子孝」¹⁵⁾라 했다.

禮記에서 증자는 “효에는 세 가지가 있으니 그 중 큰 효도는 부친 모친을 높이어 모시는 것이고 그 다음은辱되게 하지 않는 것이며 가장 아래는 봉양해 드리는 것이다.”¹⁶⁾라고 말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결과 전통적인 개념의 효윤리는 부모와 자식간에 가정윤리의 근본으로 형성된 원초적인 상호관계를 유지 발전하기 위하여 규율하는 일종의 질서로 작용한다. 이 의미가 확대되어 윗사람을 섬기는 질서의 원리인 경로사상과 나라를 다스리는 애민사상, 그리고 국가생활의 원리인 충의 윤리를 지탱하는 의미로 발전되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본능은 곧 慈의 근원이다 孝는 부모의 자애에 대한 보은의 정신이다. 내가 부모를 섬긴다는 마음가짐이나 내 자식을 위해서는 생명을 버릴 수 있다는 마음은 다 효의 정신에서 우러나온 것이다. 그러기에 효는 인간존중과 경애의 정신의 바탕이다.¹⁷⁾ 자식의 부모를 위하여 물질적으로 풍부하게 제공한다고 하여도 사랑의 깃들이지 않으면 기쁘게 해드릴 수 없는 것이다. 효는 仁을 실천하는 원천이다. 공자는 “효라는 것은 行仁의 근본이다.” 라고 하였고 효경은 “무릇 효가 덕이 근본이다. 모든 가르침은 여기서 시작된다.”고 하였다.¹⁸⁾ 효는 인을 근본으로 하여 부모와 자식의 정을 깊게 해주는 인간 본성이며 효는 悌와 더불어 인 즉 사랑을 실천하는 원천으로서 孝悌는 참된 인간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또한 孝는 仁과 道를 실천하기 위한 실천윤리로서 전통 유교적인 孝의 특성을 다 음과 같이 들 수 있다.

첫째, 부모를 모실 때 항상 순종하는 자세로 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부모의 뜻

15) 김기열(1977), 「충효사상의 연구」, 문종서관, p.134.

16) 禮記, 曲禮篇 : 曾子曰, 孝有三 大孝尊親 基次勿辱 基下能養.

17) 손인수(1992), 천계서, p.121.

18) 상계서, p.127.

을 거스르지 않는 것이 효도의 기본적인 도리인 것이다. 이 말은 부모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이지 맹종이 아니다. 순종은 부모의 마음을 살핀 뒤에 허락을 받아 행동하려는 마음가짐으로 생존시나 사후에도 부모의 유지를 잘 받들고 가풍을 잘 이어가는 효도로 생각하였다.

둘째,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는 天性之親이라 하여 하늘에서 맺어진 것으로 여겨왔으며 서로가 상대방을 위하여 자기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니 여기에는 인간의 자연적 본성이 근거가 된다. 다시 말하면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는 인위적이 아니라 자연적이며 어느 누구도 이런 신분적 관계를 함부로 단절시킬 수 없다는 특성이다.¹⁹⁾

셋째, 부모의 뜻과 行함은 절대적이었다. 부모의 뜻과 行함은 가치성을 따질 것이 아니라 부모가 선택하고 부모가 좋아하는 것이라면 자식은 조건 없이 좋아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합리성을 논할 수 없는 절대성이 항상 따르고 있다. 효는 실제로 사람들의 가정생활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되고 보호되어 왔던 가치이며 국가적 관심과 후원 하에 교육을 통해 가르쳤던 관념이요 문학과 예술의 중요한 테마였다는 점에서 그것은 옛날에는 굉장했던 것이다.²⁰⁾

2. 효윤리의 내용

효는 반드시 부모의 덕행과 유업을 이어받아 생활을 통하여 실천에 옮김으로써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고 부모의 덕행을 절대적으로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효의 본질적 내용을 살펴보자.

첫째, 자기의 신체를 보전하는 것이 첫째가는 효의 길이다. 무릇 자식된 사람은 누구든지 생을 받았으니 피와 살은 모두가 부모가 준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이 몸은 나의 사사로운 것이 아니라 부모가 남겨준 기운인 것이다.

19) 상계서, p.125.

20) 제주도교육위원회(1988), 「삶의 원리와 도덕교육」, 대광문화사, p.134.

효경에 보면 “우리의 신체와 피부는 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요, 그러므로 이것을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²¹⁾이라고 하였다. 모든 물건 중에 내 몸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그런데 이 몸은 부모가 준 것이다. 부모는 나에게 몸을 주었으니 천하에 모든 것을 다 준다고 하여도 그 은혜만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자기 몸을 잘 보전하여 훼손시킴이 없어야 가히 효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공자는 “부모는 오로지 자식의 질병만 걱정하신다.”²²⁾고 하여 신체보전하는 일이 부모의 걱정을 덜어드려 효도하는 길이라 하였다. 따라서 부모가 준 몸을 잘 지켜 부모에게 걱정을 드리지 않음이 자식의 도리이며 자신을 위한 일임과 동시에 부모에게 효도하는 길이다.

을곡이 말하기를

“천하의 모든 물건은 내 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 그런데 이 몸은 부모가 준 것이다. 만일에 남에게서 재물을 받았다고 하면 그 재물의 많고 적은 것이나 그 재물의 소중한 하잘 것 없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도 다르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나에게 이 몸을 주셨으니 천하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준다고 하여도 이 몸과 바꿀 수는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부모의 막중한 은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찌 감히 내가 나대로 몸을 가졌다고 하여 부모에게 효성을 다하지 않으리요. 모든 사람들이 능히 항상 이와 같은 마음을 갖는다면 저절로 부모에게 향하는 정성이 있게 될 것이다.”²³⁾고 하였다.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효의 시작인 것이다.

둘째. 부모에게 순종하는 효이다. 웃어른에게 순순히 따르는 것으로 효도를 함에 있어서 孝順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 효순이라고 하는 것은 어버이에게 효성을 가지고 잘 순종하는 것을 말한다. 부모를 섬기는 사람은 한가지 일이나 행동이라도 감히 제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반드시 어버이에게 말씀드린 뒤에 행하는 것이다. 만일 의

21) 孝經, 開宗明義章 : 身體髮膚 愛之父母 不敢毀傷 孝之始也.

22) 論語, 爲政篇 : 父母唯其疾之憂.

23) 김성원 역(1994), 『擊蒙要訣』, 명문당, p.63.

당히 할 수 있는 일이라도 아버지가 이를 허락하지 않을 때면 반드시 그 사유를 여쭙어서 승낙을 받은 후에야 행하는 것이다. 그래도 끝내 아버지가 승낙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역시 제 마음대로 일을 행할 수 없는 것이다.²⁴⁾

효자로서 부모를 깊이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和順한 기운이 있어야 한다. 화순한 기운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즐거워하는 얼굴빛을 가져야 할 것이다. 즐거워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순하고 부드러운 얼굴이 될 것이다. 효자가 부모를 모시는 마음은 마치 소중한 玉을 붙잡고 있는 것 같고 가득찬 그릇을 붙잡고 있는 것 같아서 정성스럽고 조심성 있게 하여 이겨내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고 당장 떨어뜨렸거나 잃어버렸듯이 겁을 내고 있는 모양을 한다. 엄숙한 威儀를 보여 의젓하게 하여 남이 보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만들어 부모를 섬기고자하는 태도는 취할 법이 아니다.²⁵⁾ 애경으로 부모를 대하는 효자라면 항상 화순한 얼굴 모습과 즐거운 기색으로 부모를 대하여야 하는 것이다. 늘 부모의 마음에는 자식이 어려 보여 사랑스런 자식으로 보이도록 어리석음을 보여야 하는 것이다.

공자가 말하기를

“젊은이들은 집에 들어오면 부모에게 효도하고 밖에 나아가서는 웃사람을 공경하며 행동을 삼가고 남에게 믿음을 주며 널리 여러 사람과 사귀어 특히 어진 사람과 가까이 하고 그리고도 남음이 있으면 글을 배워라.”²⁶⁾고 하였다. 여기서 공자의 인의 사상이 잘 나타나 있다. 공자는 정신적인 학문뿐만 아니라 사회에서의 올바르고 정당한 실천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자기 부모를 처음부터 끝까지 일생을 두고 사랑하고 공경하면서 그 효의 정신을 남의 부모, 즉 어른이나 웃사람에게까지도 옮겨 남을 사랑하고 공경하며 나라를 사랑하는 것 역시 자연의 도리요, 천리이다. 이것이 바로 순덕이요, 순리이며 이렇게 하는 사람을 공자는 悖德者라고 하였고 이에 반하여 그렇지 않는 사람은 悖

24) 擊蒙要訣, 事親章 : 父母之思 爲如何哉 豈敢自有其身 以不盡孝於父母 乎人能恒此心 則自有問親之誠矣 凡事父母者 一事一行…….

25) 禮記 : 孝子之有心 愛者 心有和氣 有和氣者 必有愉色 有愉色者 必有婉容 孝子如執玉…….

26) 論語, 學而篇 : 子曰 弟子入則孝 出則弟 謹而信 汎愛衆 而親仁 行有餘力 則以學文.

禮者라고 하여 경계하였다.²⁷⁾

셋째, 奉養의 효이다. 봉양의 효란 부모를 가까이서 잘 모셔야 한다는 것이다.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몸을 단정히 한 다음에 부모에게 문안 드리고 또한 근황을 살펴 불편함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 항상 부모를 모시되 화락한 얼굴빛과 부드러운 모습으로 공경을 하여 응대하고 봉양함에 있어 정성을 다 한다. 또 집을 나갈 때는 반드시 인사를 하고 한편 돌아와서는 다녀온 경위를 아뢰고 인사를 드린다.²⁸⁾ 이렇듯 항상 부모를 가까이에서 관심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여 잘 모셔야 함이 효인 것이다. 曾子가 말하기를 “효자가 늙은 부모를 봉양할 때에는 그의 마음을 즐겁게 하여 그의 뜻을 어기지 않으며 그의 귀와 눈을 즐겁게 하며 그의 잠자리와 거처를 편안하게 하며 음식으로 정성스럽게 봉양한다. 개와 말 같은 것에 이르러서도 다 그렇게 하는 것이니 하물며 사람이야 말할 것이 있느냐?”²⁹⁾고 하였다.

율곡은 봉양에 대하여 “요즈음 사람들은 모두 부모가 길러준 은혜를 입고서도 자기 힘으로 그 부모를 봉양하지 못한다. 만일에 이렇게 세월만 보내다 보면 끝끝내 정성껏 부모를 봉양할 때가 없을 것이다. 반드시 집안 일을 맡아 스스로 부모를 봉양하는 일을 한 뒤에야 자식된 도리를 바로 닦는 것이다. 만약에 부모가 굳이 듣지 않는다면 비록 집안 일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마땅히 뒤를 살펴서 도와드려 부모에게 잡수실 것을 갖추어 극진히 하며 구미에 맞도록 하여야 할 것이니 만일에 생각마다 부모 봉양에 뜻이 있다고 하면 산해진미라도 구할 수 있을 것이다.”³⁰⁾라고 하였다.

맹자에게 불효자는 어떤 사람인가를 물었을 때 “세속에서 소위 불효자라고 하는 것은 다섯 가지가 있다. 사지를 게을리 하여 그 부모를 돌보지 않는 것이 불효의 첫째요, 노름이나 술을 좋아하여 부모에게 봉양하지 않는 것이 불효의 둘째요, 재화를 좋아하며 처자를 돌보면서도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 것이 불효의 셋째요, 이목의 욕

27) 황병국 역(1990), 「효경」, 혜원출판사, p.66.

28) 擊蒙要訣, 事親章 : 每日 未明而起 盥櫛衣帶 就父母寢所 下氣怡聲 問煖寒安否 昏則詣寢所…….

29) 小學 : 曾子曰, 孝子之養老也 樂其心 不違其志 樂其耳目 定其寢處 以其飲食 忠養之是故 父母之所愛 赤愛之 父母之所敬 赤敬之志於犬馬盡然 而況於人乎.

30) 擊蒙要訣, 事親章 : 今人 多是被養於父母 不能以己力 養其父母 若此庵過日月 則終無忠養之時也 必須躬幹家事 自備甘旨然後 子職乃修 若父母堅不聽從 則雖不能幹家…….

망만을 따르느라고 부모에게 누를 끼치는 것이 불효의 넷째이며, 용맹을 좋아하며 싸우고 성내기를 잘하여 부모에게 위태로움을 주는 것이 다섯째 불효이다.”³¹⁾라고 대답하였다.

넷째, 공경의 효이다. 웃어른을 공손히 섬기는 것 또는 삼가 예를 표시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말하는 효는 정신적인 면에 진심으로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사람들의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흔히 사랑하는 마음이 공경하는 마음보다 지나치게 되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낡은 습관을 씻어 버리고 그 존경함을 극진하게 하여 부모가 있거나 누워 계신 곳에 자식이 감히 버릇없이 앉아 있거나 눕지 말 것이며 자식이 사사로운 손님을 맞아들이지 말며 부모가 말을 타고 내리는 곳에서 자식이 감히 말을 타고 내려서는 안 된다.³²⁾고 하였다.

자식된 사람은 항시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부모 앞에서 불손한 태도를 보인다거나 버릇없는 행동을 한다면 이는 분명히 자식된 사람의 도리를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부모를 봉양함에 있어서 부모의 은혜를 망각하는 일이 많은데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부모 모시는 자식된 도리를 다하여야 한다.

효경에 보면 “사람이 행위 가운데 효보다 큰 것이 없고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을 그를 하느님 곁에 모시는 것보다 큰 것이 없다”³³⁾고 하였다. 이는 분명히 부모는 존엄한 분으로서 天帝와 짝 지워 지엄하게 생각하고 공경함에 있어서 예의를 지극히 하여야 함이 효인 것이다.

공자는 공경하는 효가 가장 중요함을 강조하기 위하여 子游가 효에 대하여 묻자 “지금의 효라는 것은 부모를 잘 봉양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심지어 개와 말 같은 짐승까지도 다 먹여 기르고 있으니 공경하지 않으면 어찌 부모와 짐승을 구별할 수 있겠는가?”³⁴⁾ 라고 하였다.

31) 孟子, 離婁章句 下 : 世俗所謂不孝子 五 惰其四肢 不顧父母之養 一不孝也 博奕好飲酒 不顧父母之養 二不孝也 好貨財 私妻子 不顧父母之養 三不孝也 從耳目之欲 …….

32) 擊蒙要訣, 事親章 : 人家父子間 多是愛逾於敬 必順 痛洗舊習 極其尊敬 父母所坐臥處 子不敢坐臥 所接客處 子不敢接私客 上下馬處 子不敢上下馬 可也.

33) 孝經, 聖致章 : 人之行莫大於孝 孝莫大於嚴父 嚴父莫於配天.

34) 論語, 爲政篇 : 子游問孝 子曰 今之孝者 是謂能養 至於犬馬 皆能有養 不敬 何以別乎.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는 태도를 갖지 않고 그저 물질적인 봉양만으로 효를 다한 것으로 알지 않도록 분명하게 한계를 지어서 공자는 그의 제자 子游에게 효의 내용을 명시한 것이다.

자식은 언제나 부모를 공경하여야 한다. 항상 예의를 지켜 공경함이 지극하여야 한다. 물론 부모 자식 사이에는 애정이 흐르기 마련이지만 이로 인하여 부모에게 예의 바른 공경을 하지 못한다면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섯째, 諫言의 효이다. 이는 부모가 불의·불합리한 일을 할 때는 충언으로 간하여 부모로 하여금 과실을 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부모의 뜻이 만약에 의리에 해로운 것이 아니면 마땅히 먼저 그 뜻을 이어 받아서 순순히 행하며 다 소라도 어기지 말아야 한다. 만일 의리를 해치는 것이라면 화평하고 부드러운 기색과 말소리로 거듭 간하여서 반드시 들으시도록 해야 한다”³⁵⁾고 하였다. 부모의 뜻이 의리에 맞는 일이라면 당연히 따라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인간이면 누구든지 과오를 범하고 실수를 하는 법이며 불의·불합리한 일을 범할 수 있다. 그럴 때 자식된 자는 모름지기 부모의 법도가 의리에 합당치 않으면 언제든지 화평하고 부드러운 표정으로 말씀드려 옳은 방향으로 고쳐 나가도록 해야 하는 것이 효인 것이다. 이렇듯 효를 행함에 있어 천륜의 관계인 부자지간의 윤리를 저버리는 일을 하지 않음이 효인 것이다.

맹자는 부모 과실에 대해 “부모의 과실이 큰데도 원망하지 않으면 이것은 부모와 더욱 멀어지는 것이다. 부모의 허물이 작은데도 부모를 원망한다면 이것은 부모에게 사소한 일에도 성내는 것이다. 더욱 멀어지는 것은 불효요, 자식이 부모에게 사소한 일에도 성내는 것은 또한 불효이다.”³⁶⁾라고 하였다.

아버지가 그르다는 것을 알고서도 그대로 순종한다면 이것은 아버지를 불의로 몰

35) 擊蒙要訣, 事親章 : 父母之志 若非害於義理 則當先意承順 毫忍不可違 若其害理者 則和其怡色 柔聲 以諫反覆開陳 必期於聽從.

36) 孟子, 告子章句 下 : 親之過 大以不怨 是 愈疏也 親之過 小而怨 是 不可磯也 愈疏不孝也不可磯 亦不孝也.

아 넣어서 효도에 역행하는 것이니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다. .

여섯째, 養志의 효이다. 양지란 부모의 덕행과 의도하는 바 그리고 부모의 소망과 유지를 잘 받들어 발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대개의 사람들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부모가 생존하였을 때만을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사후에도 생전과 다름없이 효는 계속되는 것이다. 즉 살아 생전의 덕을 기억하고 그 뜻을 지켜 나아가는 생활 태도가 중요하며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식이 도리인 것이다.

“날마다 하는 일이나 또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도 부모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한 뒤에야 효도한다는 말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만일에 자신의 일신 가지기를 삼가지 않고 말을 함에 있어서도 법도가 없이 그저 웃고 노닐면서 세월을 보내는 자는 모두가 그 부모를 잊어버리고 한 소행이다”³⁷⁾라고 하였다.

논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삼년 동안은 아버지가 행하신 바 도리를 고치지 말아야 가히 효라고 할 수 있다.”³⁸⁾ 한 것은 효자는 부모의 덕행을 잊지 말고 이어 받아서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함을 이룬 것이다. 부모의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항상 애경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함은 물론 부모가 살아 계신 동안 행하던 법도와 덕행을 이어 받아 행하며 그 유지를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함이 효인 것이다.

양지의 효에서 그 자식이 평시에 근실하고 신실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올바른 효자라고 할 수 없다. 가령 아버지가 행한 도가 만고에 언지 못할 '道'라고 하면 자기 평생동안 고치지 말고 지켜야 할 일이지만 그것이 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3년만은 고치지 않고 그대로 지켜 나아가면서 아버지가 행하던 일을 참고로 하여 숙지하는 태도가 중요하며 또한 선친에 대한 예가 되는 것이다.

일곱째, 侍奉과 養護의 효이다. “부모가 질환이 있으면 마음속으로 조심을 하고 다른 일들을 모두 내버려두고 오직 의원에게 묻고 약을 지어다가 쓰는 것으로 일을 삼는다. 이리하여 질환이 회복될 것 같으면 그 전으로 돌아가서 본래의 하던 일을

37) 擊蒙要訣, 事親章 : 日用之間 一毫之頃 不志父母然後 乃名爲孝 彼持身護 出言無章 嬉戲度日子 皆是忘父母者也.

38) 論語, 里仁篇 : 三年無改於 父之道 可謂孝矣.

보기 시작한다.”³⁹⁾고 하였다. 이렇듯 부모를 모시고 있는 중에 불연히 질환이 생기면 모든 일을 폐하고 최우선적으로 의원을 불러 병을 보이고 간호하여 신속히 완쾌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마음이 편하도록 모셔서 심리적으로 안정을 기하도록 하여야 하며 병환이 완쾌한 후에야 자기가 하던 일을 하는 마음의 자세가 곧 효인 것이다.

“무릇 남의 자식이 되어 부모를 섬기는 예는 겨울에는 따뜻하게 하여 드려야 하고 여름에는 서늘하게 해 드리며 밤에는 잠자리를 펴서 편안히 쉬게 해드리고 새벽에는 안부를 살펴야 한다. 밖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여쭙고 돌아와서는 부모를 뵈고 인사를 드리되 그 안부를 눈여겨본다. 또 상업에 있어 함부로 다른 일을 하지 않으며 평상시의 말에 자신의 늙었다고 말하지는 않는다.”⁴⁰⁾라고 하였다. 또한 부모를 모시는 입장에서 외출을 하고 멀리 놀러갈 때는 처소를 알려야 함도 당연한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도 공자도 “부모가 살아 계시거든 멀리 나가서 놀지 말며 부득이 먼 곳을 가게 되면 가는 곳과 방향을 알려야 한다.”⁴¹⁾고 하였다.

“세월은 물과 같이 흐른다. 부모 섬기는 시간도 결코 길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된 자는 모름지기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면서도 자기가 할 일을 다하지 못할까 두려운 것이다.”⁴²⁾ 하였듯이 자식이 효도하려고 하여도 부모는 그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 것이므로 살아 계신 동안 시봉과 양호의 정성을 다하는 것만이 진정한 부모에 대한 효인 것이다.

옛 사람들은 부모 섬기는 효도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정성을 다해 시봉하는 것이야말로 자식된 도리임은 물론 사람으로서의 태도이다. 그러므로 한정된 나날들에 부모 섬기기를 다하는 것이 효도하는 길인 것이다.

여덟째, 상례와 제례에 대한 효이다. 대부분이 사람들은 부모가 생존하여 있는 동안만 공경하고 봉양하는 것을 효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효라고 하는 것은 부모

39) 擊蒙要訣, 事親章 : 父母有疾 心憂色沮 捨置他事 只以問醫 劑藥爲務 疾止復初.

40) 禮記(上), 曲禮上 : 凡爲人子之禮 冬溫而夏清 昏定而晨省 出必告 反必面 所遊必有常 所習必有業 恒 言不稱老.

41) 論語, 里仁篇 : 父母在 不遠遊 遊必有方.

42) 擊蒙要訣, 事親章 : 日月如流 事親 不可久也 故爲子者 順盡誠竭力 如恐不及可也.

가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 되는 것이다. 상, 제례의 예는 자식된 자로서 가장 정성을 다 할 일이다. 이미 돌아가신 부모는 다시는 봉양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중에 그 예를 다하지 못하고 또 제사 때 그 정성을 다하지 못한다면 하늘이 다하도록 아픈 마음을 어디에다가 풀 것이며 또 어느 때에 풀 것인가? 그렇다면 자식된 정리가 어떠하다 하리요? 증자가 말하기를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에 일을 삼가서 하고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부모를 생각한다면 백성들의 덕을 생각하는 마음씨가 두터운 곳으로 돌아가리라”고 하였다. 그러하니 자식된 자는 마땅히 깊이 생각하여 할 것이다.

“효자가 부모상을 당하면 곡을 하는 것을 그치지 않으며 사람 앞에서 예를 함부로 하지 않으며, 말을 번잡스럽게 하지 않으며, 좋은 옷을 입게 되면 몸이 편안치 않으며 음악소리를 들어도 즐거워하지 않으며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입에 달지 않는 것이니 이와 같은 것은 슬퍼하고 서러워하는 정에서 우러나는 것이다.”⁴³⁾고 하였다.

또한 공자는 “살아 있을 때에 섬기는 데는 사랑과 공경으로 하고 죽어서 섬기는 데는 슬픔과 서러움으로 하는 것이니 이렇게 하면 백성의 근본을 다하는 것이며 죽고 사는 의리가 갖추어지는 것이니 이로써 효자의 부모 섬기는 도리를 다 했다 할 것이다.”⁴⁴⁾라고 하였다.

지금의 풍속은 예를 많이 알지 못하여 제사를 지내는 법이 집집마다 다르다. “만약 예로써 통일시키지 않으면 결국은 문란하여 질서가 없게 될 것을 면치 못할 것이다.”⁴⁵⁾라고 하였다. 자식된 자는 마땅히 조상을 받드는 일에 정성을 다하여야 함이 효인 것이다.

아홉째, 揚親의 효이다. ‘입신양명의 효’의 뜻을 가지는 것으로 학문과 도를 닦고 사회에 나아가서 바른 천도와 진리를 따라서 행동을 하고 나아가서는 입신출세하여 자기 자신의 명예는 물론이요, 가문과 조상까지도 빛내게 하는 것이 자식된 자로서

43) 孝經, 喪親章 : 子曰 孝子之喪親也 哭不依 禮無容 言不文 服美不安 聞樂不樂 食旨不甘 此哀戚之情也.

44) 論語, 喪親章 : 生事愛敬 死事哀戚 生民誌本 盡矣 死生之義 備矣 孝子之事親 終矣.

45) 擊蒙要訣, 喪·祭禮章 : 喪祭二禮 最是人子 致誠處也 已沒之親 不可追養 若非喪盡其禮 祭盡其誠 則終天之痛 無事可萬…….

보람 있게 효를 하는 길이다. 이것이 揚名榮親하는 효도이다.

효경에 “효란 가정에서 부모를 섬기고 孝養을 다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국가 사회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중간 지점의 봉사라고 보고 효와 충을 다 하게 되면 立身行道하여 올바른 인간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 끝을 삼았다.”⁴⁶⁾고 하였다.

공자는 효도의 시작을 자기 몸을 건전하게 보존, 유지하는 데 두었다. 몸이 건강하여야 비로소 덕을 행하게 된다. 덕의 근본은 효이다. 그러므로 몸이 건강하여야 효도를 할 수 있다. 덕은 정신생활이다. 덕은 행위이고 그 덕의 행동은 효이다. 효도는 가정에서 부모를 섬기고 모셔서 봉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사회에 봉사하고 이바지하여 세상에 이름을 드날림으로써 후세에까지 자기뿐만 아니라 부모 나아가서는 조상까지도 유명하여 진다. 이것이 효의 완성이다.

울곡의 어머니 신사임당은 자식에게 가훈을 통하여 “글공부나 한다고 글이나 잘 외우고 짓는 것만으로 일삼아서는 안 된다. 그것보다는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행실을 삼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⁴⁷⁾고 하였다.

이상에서 볼 때 효의 본질적 내용은 자신의 신체안전에서부터 시작하여 가정에서 부모를 봉양하고 순종하며 돌아가신 후라도 정성을 다하여 예를 올리는 것이 진정한 효임을 알 수 있다.

3. 효윤리의 현대적 의의

孝를 인간사회의 영속적인 기본윤리로 이해할 때 효는 분명히 인간의 생활을 規律하는 當爲的 질서인 것이다. 효가 생활을 규율하는 질서로서의 규범적 성격을 지닌다면 규범을 사회적 요청에 따라 可變的 측면과 不可變的 측면을 드러내게 되는데 가변적이라는 것은 전통적인 先行後學⁴⁸⁾의 원리가 현대사회의 기능적 분화 요청

46) 孝經. 開宗明義章 : 夫孝事親 中於事君 終於立身.

47) 김익수(1983), 「효경대의」, 수덕문화사, p.237.

에 따라 孝行과 學文을 병행시키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를 섬겨야 한다는 사실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부정할 수 없는 불가변적 측면인 것이다. 즉 효는 부모를 잘 섬긴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때 그 원리는 상향적으로는 국가에 충성을 다한다는 충의 윤리(保國倫理)로 승화되는 동시에 하향적으로는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한다는 慈愛로 표현되어 종적 사회관계 윤리로 나타난다.

다른 한편으로는 효의 원리가 횡적 사회관계의 윤리로 승화되어 사회적으로 서로 존경하고 우애롭게 생활을 해 나간다는 悌(互惠倫理) 또는 信(交誼倫理)으로 표현되며 가정적으로 부부간에 화목 한다는 사랑의 윤리(協和倫理)로 나타난다.

효의 본체를 고대적 의미로 전해지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효의 개념을 현대적 의미로 해석한다면 큰 무리 없이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요지는 얼마든지 있다고 하겠다. 효의 규범적 당위성은 우리의 생활을 내면적으로 규율하는 기본적 윤리로서 살아남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럼에도 현대에 효 개념을 위협하는 요인이 있다면 그것은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라도 발전적으로 해석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시대가 아무리 핵가족제도로 변했다 하더라도 한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것은 우리를 정성껏 길러주신 부모님들이 예나 지금이나 우리들 가슴 깊은 곳에 자리잡고 있다는 점이다. 옛날에는 생활체계가 분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을 측근에서 모실 수 있었지만 현대사회는 그렇지 못하다. 사회적인 상황이 변했다 해서 부모님을 모시는 일마저 포기해도 좋다는 뜻이 아니다. 다만 오늘날 형편에 알맞게 모시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효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으로서 부모님께 안심하도록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도록 해드리면 그것이 바로 현대적인 효행방식의 일환인 것이다. 시기적으로 현대에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스스로의 사회적 책임감의 막중함을 깨달으면서 모든 생활윤리의 근간이 효로서 이루어지고 있다

48) 小學, 行有餘力 則以學文 弟子之職 力有餘學文 不修基職而先文 非爲己學也.

는 전통문화적인 맥락을 반드시 새겨두어야 한다.

옛날 전통사회에서의 효의 개념은 무조건적이었지만 현대적인 효의 개념은 합리적인 것이어야 하고 현대사회의 흐름과 일치하는 것이어야 하고 현대사회의 변화에 순행하는 것이어야 하며 능률을 돕는 것이어야 한다. 현대적이며 합리적인 효를 高永復⁴⁹⁾은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첫째, 전통적인 효는 신분적인 지배와 관계가 있고 강요적인 성질을 내포하고 있으나 현대적인 효는 규범적인 것이 아니라 가치적인 것이어야 한다.

둘째, 현대적인 효도는 인간 소외의 극복의 방도로서 재정립되어야 한다. 현대인은 초면부지의 인간에게도 자선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정을 쏟을 수 있는 대상을 찾고자 하는 현대인의 고독감의 표현이다. 정서적인 보람은 불안감을 갖는 현대인에게는 청량제이고 소외의식에 대한 보상일 될 수 있다. 인간은 자기 완성을 위해서 끊임없는 정서의 원천을 확보하기 위해서 효도는 권장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인간의 심리적으로 안주할 수 있는 위안의 장소를 부모와의 애정교환에서 찾으려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전통적인 효는 사회적인 압력을 통한 강력한 통제가 전제되고 있으나 현대적인 효는 강압적이고 규제적인 것이 아닌 가치적, 합리적 목표 개념으로 바꾸어 놓아야 한다.

셋째, 현대적인 효도는 가족체계에서의 역할개념으로 받아 들여야 한다. 가정은 생활공동체인 동시에 감정공동체이다. 생활공동체로서의 지위 분화가 있고 감정공동체로서의 지위와 역할의 분화가 있다. 이 지위와 역할의 분화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부모가 혹시 자기의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라도 감정공동체로서의 결합은 유지되어야 한다. 감정공동체로서의 결합이 없으면 공동생활의 기반이 붕괴되고 인간이 설 곳이 없어진다. 이 원리는 일반적인 사회생활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현대에도 효는 윤리의 기본 명제에는 반론이 없다고 했으며 다만 효도의 방법에 있어서 전통 효의 모순된 방법을 부정한 것이지 부모를 잘 모셔야 한다는 효의 기

49) 高永復(1983), 「현대사회와 노인복지」, 아산사회복지재단, pp.55~58.

본 원리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했다.

또한 金裕赫은 현대 윤리에서 효의 의미를 “부모를 잘 섬긴다(善事父母)는 것은 그 원리를 상향적으로 볼 때는 국가에 충성한다는 충의 윤리(保國 倫理)로 승화되는 동시에 하향적으로 볼 때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한다는 자애로 표현되어 수직성 종적 사회관계로 나타난다.”⁵⁰⁾고 했고 孫仁銖는 “자식의 보은과 효도에 못지 않게 중시되어야 할 점은 아버지의 ‘아버이 됨’이다.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늘 걱정하고 용서하는 ‘慈’의 덕도 필요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향적 父慈와 상향적 子孝는 일체가 되어야 한다. 아마 가정의 화목을 유지하는 윤리 체계는 ‘효’와 ‘자’와 상호성일 것이다.”⁵¹⁾라고 하였으며 자녀가 부모에 대해 사랑과 믿음으로 공경하는 것은 곧 사회 전체가 믿음과 사랑으로 일체감을 조성하고 희망과 기대를 동반하는 것이며 아무리 못나고 무식하고 천하더라도 효가 하나의 자연적 情과 人間愛에서 출발한다 면 마땅히 존중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李奎浩는 “효라고 하는 것은 가족 생활의 윤리로서 가족들이 바람직한 인간 관계를 통해서 가정으로 하여금 인간성의 요람이 되게 하는 윤리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효의 윤리는 가정으로 하여금 공리주의, 기능주의, 합리주의를 초월한 무한한 신뢰와 절대적 사랑과 밝은 희망의 원천이 되게 하는 윤리라는 것이다.”⁵²⁾라고 하였으며 오늘날의 시대적인 상황과 사회적인 조건은 도덕 교육을 절실하게 요청하고 있으면서 또한 도덕적 교육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하였다.

오늘날 고도로 발달한 과학 문명 하에서 특히 서구의 풍물과 생활습관을 많이 수용하고 있는 가운데 仁本思想 내지 인권사상과 자유사상이 효 사상과 충돌을 일으키는 일이 없지 않은데 이것도 그 양자간의 공통점을 좀더 깊이 찾는다면 해소 될 것으로 본다.

효란 세대와 세대간의 상호보완적인 의미에서 볼 때 절대적인 지상명령이 되어서

50) 金裕赫(1997), “효의 본질” 『충효사상』, 단국대출판부, pp.6~8.

51) 손인수(1992), 전계서, pp.130~131.

52) 李奎浩(1978), 『충과 효를 위한 교육』,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p.62.

도 안되겠지만 최소한 발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종속관계를 떠난 현실적인 타당성을 가지며 합리적인 관계로 발전되어야 한다. 즉 근본적인 뿌리를 상하지 않게 하는 가운데에서 현대 감각적인 단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몇 가지로 설명한다면

첫째, 현대의 효는 규범지향성을 탈피한 가치지향성을 지녀야 한다. 현대의 시대적 요청에 따라 자율과 평등, 박애의 가치가 최고로 존중되는 입장에서 즉 규제나 통제가 아닌 자발적인 효가 나와야 되고 부모 또한 자식에 대한 자애로서 지향점을 가져야 한다.

둘째, 인간의 정이 넘치는 보금자리로서의 효가 되도록 강조되어야 한다. 가족이지만 부자간, 형제간, 부모간에 역할이 다름으로 인해서 대화가 상실되고 감정의 교환이 어렵게 됨으로써 생각이 달라지고 사랑이 결핍되며 한 등지 속의 타인이 되어 버리면 자연히 효가 사라지기가 쉽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을 바탕으로 하는 감정의 공감대가 형성될 때가 친자관계 뿐만 아니라 가정의 화목을 이룰 수 있다.

셋째, 효라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통사회에서나 현대사회에서나 본질적으로 똑 같다는 것을 강조한다. 우리의 가장 뿌리깊은 효 사상은 현대생활에서도 생활과 삶의 본질이 되어야 하고 미래에서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효는 결코 퇴색될 수도 변화될 수도 없는 본질적인 것이며 우리는 지키고 행하여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때문에 효는 인륜의 大본이요 百행의 근본이며 모든 행동과 사상에 대한 척도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⁵³⁾

현대적 도덕교육의 과제에 포함되는 효도의 도덕원리로는 보은과 감사, 봉사와 헌신, 경애와 배려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덕목은 유교적 효의 현실에서 발현되었으나 인간 완성 및 이상사회의 현실에서 으뜸이 되는 기반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새로운 현대적인 효윤리가 정립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오늘날 효가 의의를 가지려면 현대적 효는 다음과 같은 것이어야 한다.

첫째, 현대 효는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가족끼리 서로 이해하고 보완적이어야 한

53) 황하택(1984), 전제서, p.105.

다. 현대에 있어서 대부분 핵가족 형태로 되어있다. 핵가족의 부모와 자녀들은 민주적 사고방식을 기반으로 하여 교육을 세대로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들 핵가족의 특징은 가족 구성원끼리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며 평등한 관계에서 가사에 대해 논의하고 부부 상호간 서로 돕는 성향이 높다고 하겠다. 자녀교육에 있어서도 강압보다는 인격을 존중하는 경향이다. 효 교육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역할을 스스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부모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갖도록 하며 부모의 일을 도와 드림으로써 은혜에 대하여 보답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현대의 효는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생활과 관련되어야 한다. 타인을 의식한 일시적인 화려한 향연보다는 일상적 조석 봉양이 진정한 부모를 위하는 길이 될 것이다. 일상적이라 함은 같이 동거하는 경우를 의미하지만 몸소 뵙지 못할 때 전화 문안쯤이야 누구나 할 수 있는 도리 일진데 전화 한 통화 못하는 현대인의 자식된 정을 이대로 지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상실하였던 진정한 전통 효를 다시 찾아야 할 때가 되었다.

셋째,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도적이고 교육적인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어야 한다. 부모의 지극한 정과 진심으로 자녀를 보살피는 것은 효의 원초적 근원이라 볼 수 있다. 누구에게나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이다. 부모가 부모에 대한 효행이 지극할 때 그 가정의 효는 활기를 찾는다. 자녀들은 자연적으로 오늘의 젊은이가 언제까지 젊은이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젊은이도 언젠가는 늙게 마련이라는 자연의 섭리를 깨닫게 된다. 오늘의 우리가 부모를 위하는 일은 곧 내일의 자신을 위하는 일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넷째, 부모가 교육적인 자세를 항상 가져야 한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동시에 엄한 훈육을 하여야 한다. 부모의 감정이 확고 부동하고 또 훈육하는 자체가 이로운 일이라면 자녀들에게 철저히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즉 자녀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엄한 훈육이 교육적, 내재적 통일⁵⁴⁾을 이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정은 부성과 모성의 상보된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따뜻한 어머니의 사랑과 엄한

54) 이수윤(1992), 「서양철학사」, 법문사, p.289.

아버지의 사랑의 조화와 통일을 이룰 때 이상적인 가정교육이 실현되는 것이다.

다섯째, 현대의 효는 타율성이 아닌 자율성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옛 선조들이 실천해 온 전통적인 효는 타율성이 많이 강조된 효라 볼 수 있다. 가부장제 하에 이루어진 효에 대한 국가적 포상제도 등은 사회의 도덕적 순화를 위하여 기여도 했지만 타율에 의한 실천으로 인하여 무리한 부작용도 있다고 볼 수 있다. 효도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라든가 상을 받기 위한 것이라든가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진정한 효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민주주의란 인간존중을 표방하는 휴머니즘을 철학적 배경으로 하고 자유와 평등의 사상을 기초로 하여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조화롭게 사는 공동사회를 형성하고 유지하려는 데 그 목적을 두는 일종의 생활규범 등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원리가 민주화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자유와 평등이 민주사회의 규범이라면 효의 실천도 민주사회의 규범 중에 중요한 부분이라 볼 수 있어서 효 교육이 필요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므로 모든 국가의 제도와 정치, 국민의 공동체가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제도가 아무리 민주적이라 하더라도 민주적 사회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⁵⁵⁾ 현대사회의 보편적 윤리규범으로 자유와 평등사상을 민주주의적 기본 가치로 삼고 있으며 인간의 삶을 가장 윤택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인간의 원초적인 사상인 자유와 평등사상이 얼마나 보장되느냐가 문제이기 때문이다.

도덕과 행복의 조화적 통일로 한 인간의 윤리적 최고선을 실현하듯이 우리 민족의 독특한 효의 문화를 전통적인 입장과 민주적 입장에서 유기적 내재적 통일을 이룰 때 새로운 현대적인 효를 만들 수 있다고 본다. 민주주의는 조화를 기본 원리로 하고 있다. 조화의 실현은 대립물의 모순과 갈등을 조정하는 주체로서 지도자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⁵⁶⁾ 이와 같이 효 실천에 있어서도 보편과 특수, 유기

55) 이영희(1994), “초등학교 민주시민의식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p.1.

56) 이수윤(1992), 전계서, p.289.

적 통일, 多樣的 통합적 통일을 실현시킬 수 있는 一者의 역할이 필요하게 된다. 효의 실천에서 一은 가정에서의 父, 多는 가정 구성원으로서의 가족, 친족이며, 현대적인 효의 민주적 요소로서의 작용은 일과 다의 유기적 내재적 통일의 시도라고 볼 수 있다.

孝도 中庸의 한 형태이다. 중용은 그 때 그 상황에서 가장 타당한 선택과 행동을 의미한다.⁵⁷⁾ 효의 유기적 내재적 통일이라 함은 중용적인 행동으로 덕이 있는 행동을 의미한다. 덕이 본질은 중용이기 때문에 덕은 중용을 목표로 하는 성질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사회는 지난 1세기 동안 급변한 사회구조를 형성하였다. 특히 정치 구조면에서 중앙집권적 봉건사회에서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사회로 변화하였으며 이러한 변동은 가치체계에 있어서도 개인주의와 평등주의 등을 강화하고 확대시키는 문화적 변혁을 유발하게 되었다.

金奎五는 우리 사회가 제도적으로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규정하고 있는데도 오늘날 한국사회의 가정이 대부분 아직도 전통성과 현대성이 混在하는 문화적 이중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하였고 이러한 문화적 이중구조는 가정에서 윤리덕목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상호 대립, 갈등, 혼란 등을 일으켜 부모와 자녀간의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게 되었고 민주적 시민으로서 자기발전에 저해 요인으로 표출한다고 하였다.⁵⁸⁾

민주사회의 효는 그 실천에서 특수와 보편의 요소를 찾아 유기적 통일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의 존엄성이 무시된 효 사상과 시대적 감각에 재정립된 효 사상이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효는 우리 사회에서 인간생활을 보람되게 하는 當宣的 질서로 여겨 왔다. 효는 생활을 制御하는 질서로서의 규범적 성격을 지녔다. 자녀 된 입장에서 부모를 정성껏 섬겨야 한다는 사실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부정될 수 없는 우리 민족의 근원적 사상

57) 상계서, p.105.

58) 金奎五(1984), "가정윤리 근본으로서 효교육",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p.33.

이다. 그렇다면 전통적인 효를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가, 특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효를 바탕으로 성립된 윤리적 요소를 발전적으로 재정립하여야 한다.

金永敏은 민주사회의 효를 사회의식 차원에서 자기 이외의 타인을 존중하는 첫 걸음이 되는 것이고 실제행위의 차원에서 타인에 대한 인격존중의 근원이 되는 것이며 자기 부모를 존중하는 사람이 남의 부모를 무시할 수 없고 남의 부모를 무시할 수 없다면 그 자체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⁵⁹⁾

효 윤리를 일방적이거나 상향성의 체계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를 종적으로 연결시켜 사회적 측면과 합일되게 구안해야 할 것이고 횡적으로는 사회관계의 윤리로 승화되어 사회적으로는 서로 존경하고 우애롭게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互惠 평등원리 또는 友誼원리로 표현되어 부부간에는 화목으로 사랑의 윤리로 역할을 할 수 있다.

오늘날의 가족의 생활은 인간으로서의 자아실현에 두고 가족 구성원들의 존중과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민주주의 기본원리가 적용되는 작은 사회가 이룩되어야 한다. 즉 과거 가정의 효는 절대 권위 소유자인 부의 차별적 특수성을 강조하였으나 오늘날의 가정의 효는 민주적 평등원리에 기반을 둔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민주사회의 자유평등사상에는 반드시 자율과 책임이 따르기에 가정에서 가족의 임무수행이 대단히 중요하다. 가정의 행복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자기의 수행기능을 성실히 수행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효는 차별성이 아닌 부자간에 규범적 통합규범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러한 효는 민주사회에서 부합되어 실천되려면 과거의 차별적 전통적인 효 의식을 기반으로 하는 가족관계를 적어도 인격적으로 대등한 관계라는 의식이 필요하다. 이것이 효의 유기적 통합적 통일이며 중용이다.

효가 자신의 안전과 건강을 도모하고 禮로써 화합하며 부모를 위해 봉사하고 합리적인 命에 순종하며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선행을 행하며 자신의 근본을 자각하고 부모를 위하듯 전체를 위하기를 강조하는 덕목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는 것이

59) 金永敏(1985), “청소년 윤리교육과 충효사상”,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p.44.

라면 이는 자아가 확대된 사회적 성숙이 한국적 표현으로서 인간의 중요한 발달과업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도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고 하겠다.

민주주의 시대의 효에 대한 본질은 부모 자식사이에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양쪽 다 서로 사랑과 공경을 주고받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사람에게 있어서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도는 자연스러운 것이며 또한 본능이라고도 할 수 있다.⁶⁰⁾

安泰源은 父慈子孝라는 것은 일방적이 아닌 쌍방적 또는 상호성의 윤리라고 하였다.父子없는 慈孝는 절대적인 효 또는 계율화된 형식적 효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父慈子孝는 아버지의 내리사랑과 자식의 치료사랑을 동시에 중시하는 개념이며 부자간에 이루어지는 윤리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⁶¹⁾ 민주사회는 모든 일을 자율적이고 스스로 책임을 지며 일상적으로 처리함을 중시하는 사회이기에 현대사회의 효는 인간 내심의 자발성에 호소하는 효이어야 한다.

60) 손인수(1992), 전제서, p.126.

61) 안태원(1993), “효경과 부모은중경에 나타난 효사상 비교”,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p.53.

Ⅲ. 효윤리의 현대적 실천에 있어서의 제 문제

1. 현대사회의 특성과 효 실천의 문제

현대사회의 특징은 物量指向的 計數主義, 官能主義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인류는 첫 단계인 신석기시대의 수렵, 채집사회에서 비로소 경제, 사회생활을 하게 되었고 둘째 단계인 농업혁명에 의하여 농경생활을 하면서 문화, 경제생활을 이룩하였고 셋째 단계인 산업혁명을 이룸으로써 현대문명과 산업사회의 풍요한 현대를 창출하게 된 것이다.

특히 오늘의 산업사회의 특징은 물질주의, 과학기술주의를 주축으로 건설되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물질적 풍요 속에 살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정신의 경시되는 사회, 나아가 최대개발과 생산의 극대화, 대량소비가 목적이 되어 가는 사회로 치달게 됨으로써 인간보다는 물질을 인격보다는 능률을 더 평가하고 또 내세우게 되어 이로 인하여 오늘의 우리 사회는 날로 비인간화 추세로 경도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현대사회에서는 각양각색의 사회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를 그 근본적인 유형으로 분류한다면 중심가치의 결여, 집단사이의 갈등, 문화지체, 규범의 상실, 가족기능의 약화, 비인간화, 공허감 등으로 집약할 수 있다.⁶²⁾

청소년의 도덕성을 중심으로 효의 실천과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면

첫째, 청소년들의 중심가치가 결여 되어있는 문제이다. 현대를 흔히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서로 상충하는 사상 속에서 현대인은 번민하면서 살아간다는 의미라고 표현할 수 있다. 물론 이질적인 사상과 철학은 반드시 현대에서만

62) 장진호(1976), 「교육과 사회」, 실학사, pp.105~108.

볼 수 있는 현상은 아니다. 멀리는 회랍철학에서 가까이는 실존철학에 이르기까지 이런 경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소수의 뛰어난 사람만이 관심을 가져 왔으나 지금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번민하는데서 현대인만이 갖는 무거운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다. 독재주의와 민주주의,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국가주의와 개인주의, 전통과 진보, 경쟁과 협동, 전체와 부분, 통제와 자유, 수월과 평등, 물질과 정신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상충되는 사상의 틈바구니에서 현대인은 그 좌표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현대사회는 여러 집단의 다양한 신조로 인하여 그 가치의 기준도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대사회의 기류에 영향을 받아 자연히 집단 구성원들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중심 가치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⁶³⁾ 보편적이고 통합된 가치체계가 결여되어 있으면 있을수록 삶의 신조에 대한 공통분모는 더욱 더 희박해지게 마련이다. 여기에 가장 예민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 현대문화라고 할 수 있다. 문화의 형태와 그 일관성을 상실한 현대문화는 무쾌도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문화 가치를 내용으로 하는 현대교육도 제 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흔들리고 있는 것이 현대사회와 현대교육의 모습이라고 하겠다.

둘째, 집단사이에 갈등의 문제이다. 집단은 작게는 놀이 집단에서부터 크게는 국가집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집단은 그 문화적 배경, 목적의식, 계층구조, 연령차 등에 따라 그 집단의 성격과 역할이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각 개인도 그 나름대로의 고유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집단도 그 집단 나름대로 독특한 집단의 개성을 지니고 있다. 이에 더하여 현대사회의 무쾌도한 분위기는 더욱 집단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서로 다른 흥미, 욕구 및 가치기준에 따라 저마다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데서 더욱 갈등현상이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다. 각 집단 사이에는 필연적으로 경쟁의식이 있게 마련이고 저마다 자기가 속한 집단에 충실하려면 다른 집단과 경쟁, 대립, 갈등현상이 불가피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의 공동이익을 추구하는데 필요한 집단사이의 결집을 오히려 저해하는 결과를

63) 김선양(1985), "현대사회에서의 경로효친 문제", 「경로효친교육」, 서울시교육위원회, p.75.

가져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급격히 변동하는 현대사회는 인간의 지식과 지혜가 발달하여 감에 따라 사회변동이 가속적으로, 누가적으로 진전되어 간다. 오늘의 과학적 발전은 과거 수십 세기의 변천과정을 불과 수년 동안에 이룩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변동은 집단뿐만 아니라 세대간의 갈등을 더욱 격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셋째, 현대사회의 문화지체 문제이다. 현대문화의 각 분야가 동일하게 변동하지 않고 어떤 부분은 빨리 또 어떤 부분은 서서히 변동하는 데서 문화의 지체현상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교통시설이나 각종 전자제품 등은 매우 빠르게 발달하고 있지만 정부의 형태나 가족제도 등은 비교적 서서히 변동되어 간다. 일반적으로 대도시의 변동상황과 산간벽촌의 변동상황은 그 변화에 있어서 대조적이다. 문화는 서로 의존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분야가 변동하게 되면 다른 분야도 함께 변동을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심한 부적응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한 지역 혹은 한 분야의 변동이 다른 지역이나 분야에도 연쇄적인 변동을 자극하게 되고 하나의 발명이 또 다른 발명에 파생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게 한다. 여기서 온갖 현대의 사회문제가 대두되기에 이른다.

넷째, 규범의 상실되어 가는 문제이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사회가 급속도로 변동함에 따라 세대간의 가치관, 경험, 도덕 등에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가 발전하면서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모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적 배경과 자라나는 자녀들이 문화적 현실사이에는 세대의 간격이 있게 마련이다. 여기에서 새 세대들의 반항의식이나 반사회적인 행동이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다섯째, 사회변화에 따른 가족기능의 약화되는 문제이다. 가족 구성원 사이에 가치관의 차이가 생겨 가족 본래의 기능이 약화되고 가족 안에서 공동적인 행동을 분담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게 되고 각 가족 구성원이 역할이 갈수록 불분명해지고 있다.⁶⁴⁾

우리 사회가 산업사회로 옮겨지면서 가족의 많은 기능이 약화되어 가고 있다. 또 급격하게 변천되어 가는 산업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가족 구성원이 가족 밖의 사

64) 상계서, p.77.

회적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경주하게 된다. 그리고 가족 밖의 방송매체 등 여러 기관에서 보다 강하게 영향을 주어 가족의 고유한 문화적 개성이 점차 퇴색하게 되어 교육의 기본단위로서 가족의 교육적 역할이 자연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가족에서의 본연의 책임이 소홀해지기 쉽고 가족 성원간의 상호관계에도 자연히 거리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여섯째, 공허감이 생기는 문제이다. 현대사회에는 어떤 아노미(anomie)가 지배하고 있다. 아노미란 사회적 규범이나 가치의 결여에서 오는 사회적 진공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다. 이와 같은 현상 속에 놓여진 청소년들은 인간관계에서 자기만이 단절감을 실감하며 어떤 때에는 사회에서 도피하려는 좌절감에까지 이르게 될 때도 있다. 사람의 행동을 규제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심리 속에서도 인간 사회 안에 어떤 빈 공간이 생기게 된다. 이것이 현대교육 중에 하나의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 생겨난 사회문제들은 현대 청소년들에게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어 인간성의 상실, 도덕성의 해이와 불감증으로 사회적 일탈행위가 빈번히 발생하여 인간성회복을 위한 교육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2. 전통적 효윤리와 현대 윤리와의 갈등

윤리는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이다. 따라야 할 행위의 규범인 동시에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보여주는 실천의 지표이다.⁶⁵⁾ 사람들은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따르지 않을 때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도 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한다.

65) 윤영보(1994), 「경로효친교육」, 교육주보사출판부, p.151.

사회의 일반적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 시인을 하게 되고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 비난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개인적 입장에서 또 때로는 사회적 입장에서 계속되는 반응을 하게 될 경우 거기에는 어떤 고정관념이 생기게 되고 이 고정관념이 장시간에 걸쳐 수정·보완되어 하나의 체제성을 갖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윤리라고 한다.

현대윤리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지키고 따라야 할 윤리이며 행위의 규범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관심을 기울이는 현대윤리는 현대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보편 타당한 윤리가 아니라 우리 한국 그 중에서도 특히 청소년들의 윤리이다.

청소년층의 의식구조를 종합한 결과⁶⁶⁾ 가부장적이고 권위주의적 효도관이나 계급적 장유유서관을 변질시킨 개인주의, 서구문화의 영향아래 개인주의의 경쟁원리가 물질주의와 현실주의적인 사고방식과 결부되어 나타난 실리주의, 보수적이고 수동적인 전통적 가치관 대신에 들어선 진취성과 개방성, 사회부정에 민감하여 저항하는 사회정의감, 그리고 기성세대의 이해부족과 무관심으로 나타나는 소외감 등을 지적할 수 있다.

또 한국 청소년들의 문제성을 지닌 행동성향⁶⁷⁾은 다음과 같이 지적되고 있다. 그것은 부모나 교사 그리고 어른이나 노인에게까지 존경하는 마음가짐이 약하여진 연장자에 대한 존경심의 상실, 규칙이나 질서가 개인이나 사회를 위하여 필요하기보다 오히려 개인을 구속하기 위하여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데서 오는 규칙과 질서의 무시, 주체성이 강하다는 면에서 비교적 조속현상을 보여주는 자기중심성과 지나친 이기주의, 권리만 추구하고 의무를 수행하려는 태도와 노력이 부족한 권리추구형인 동시에 책임감의 부족, 가공적인 이상의 세계에 살고 있기에 나타나는 비현실적 抱負水準과 현실감각의 결여, 예의나 순결을 거치장스러운 것으로 보는 예의 무시, 몰순결, 감각적 쾌락추구의 가치관, 소속되어 있는 집단내에서의 가치를 유치하기 위하여 무

66) 김경동(1980), 「현대사회와 인간의 미래」, 평민사, p.354~356.

67) 국무총리기획조정실(1981), 「청소년백서」, p.6~7.

조건 나타내는 동료집단에의 맹목적 동조성, 인기적의 인물을 영웅시하는 스포츠맨이나 연예인의 영웅시, 모든 일들을 힘들이지 않고 쉽게 해결하려는 반노동적 태도와 안일성의 추구 등이 지적되고 있다.

효윤리는 우리들이 지너온 전통윤리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이다. 전통윤리인 효윤리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의 윤리와의 갈등요소와 갈등 상황을 살펴보고 실천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로 하자.

1) 청소년의 윤리와 전통적 효윤리와의 갈등요소

(1) 平等主義

평등주의는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이며 이상으로서 민주화, 산업화, 도시화의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오늘날의 한국사회에서 청소년들 사이에 불충분한 상태이긴 하지만 보편적으로 형성된 의식구조인 동시에 윤리라고 할 수 있다.⁶⁸⁾ 인간사이의 수평적 관계를 강조하는 이 평등주의는 근본적으로 위계서열적인 상하수직관계를 강조하는 전통적인 효윤리와 배치되고 있으며 또한 필연적으로 갈등을 야기 시키고 있다.

평등의 개념은 모든 사람간에 차등이 없음을 뜻하는 것으로서 보통 정치적 평등, 법 앞의 평등, 기회의 평등, 경제적 평등 그리고 사회적 평등의 다섯 유형으로 나누어진다.⁶⁹⁾ 그러나 그 중에서 효윤리와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기회의 평등과 사회적 평등이다.

기회의 평등은 사회계층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회마다 큰 차이가 있다. 어떤 사회에서는 경제적 부에 따라 사회적 신분이 결정되기도 하나 교육과 같은 가치에 따라 신분이 결정되기도 한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부의 축척과 교육의 기회

68) 윤영보(1994), 전계서, p.156.

69) 정세구 역(1985), 「현대정치 이데올로기」, 교육과학사, pp.49~50.

가 열려짐으로써 사회적 신분의 상승이동의 기회도 열려있는 것이다. 사회적 평등은 어떤 사회 속에서도 인종이나 종교 등의 특성과 같은 인위적인 제약에 따라 개인의 잠재적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즉 많은 사람들이 배경, 지위, 부에 따라 계급간에 가지고 있던 불평등을 극복하는 것을 뜻한다.

평등주의의 실현은 인류가 가져온 이상 중의 하나였으나 그것이 현실화되기 시작한 것은 금세기에 이르러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평등주의의 의식이나 가치관이 주로 해방이후 교육을 통하여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그 후 공업화, 도시화, 정보화 등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 급진적으로 촉진되었다.

사회적 변화 중에서 공업화는 기회의 평등과 사회적 평등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였고 도시화는 인구의 대규모 지역적 이동을 가져와 또 하나의 사회적 평등화의 요인으로 등장하였다. 한편 과학기술의 발달은 인간생활에 필요한 정보의 생산과 전달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와 대중매체가 주축을 이루는 정보화시대가 열려 이 결과로 사람들의 취미와 태도 등이 획일화 혹은 의식구조상의 평등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최근 고도산업사회로의 진입과정에서 발생하기 시작한 평등화의 추세와 계속되는 의식구조의 변화 속에서 사람들은 전통적인 농경사회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평등의식을 지니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청소년들은 더 이상 가족주의에 바탕을 둔 효윤리의 전통적인 서열의식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고 있으며 설혹 외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내적으로는 심한 갈등과 저항을 느끼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것이다.

(2) 個人主義

개인주의는 개개인의 자신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자신의 주체성과 인격을 존중하며 동시에 타인에 대해서도 같은 배려를 해야 하는 계약과 신뢰의 인간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근본적으로는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이상과 통하는 것이다.⁷⁰⁾

그러나 최근에는 자신의 편의와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주의의 개념으로 혼동되어 쓰이기도 하며 오히려 그것이 더 보편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어떤 쪽에 가깝든 이러한 개인화를 지향하는 개인주의 윤리는 연소자 자식들의 일방적인 敬과 孝를 필요로 하는 집단주의에 근거한 효윤리와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

개인주의는 보통 그 핵심을 이루는 요소로서 개인의 소망을 집단이 아닌 개인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해결하는 것, 개인의 느끼는 喜怒哀樂은 어디까지나 자기 개인의 것이지 집단의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 것, 개인의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자기가 사는 주변의 환경에 동조하기보다는 자기의 도덕적 신념이나 가치기준에 따르는 것 등을 말한다.

그리고 이 개인주의는 그 수준에 따라 결격형 개인주의와 이상형 개인주의로 구분되기도 한다. 사회 속에서 한 개인이 스스로의 장래뿐만 아니라 타인의 장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개인 스스로가 결정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자신과 타인들을 모두 생각하여 판단하고 결정하는 경우가 있다. 전자의 경우를 결격형이라 하고 후자의 경우를 이상형이라 한다. 이러한 결격형 개인주의를 보통 이기주의라 하고 남이야 어떻게 되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편의 위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전통사회의 경우 개인주의는 근본적으로 무시되어 왔다. 가족사회, 촌락사회 등의 집단사회에서 개인을 내세운다는 것은 악덕이었고 그것은 개인들로 하여금 집단으로부터 소외되는 조건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해방이후 밀어닥친 서구의 개인주의적 문화 및 제도의 이식과정과 70년대 이후 산업화로부터 파생된 사회적 환경이 변화로 인하여 개인주의, 이기주의는 만연하기 시작하였다. 그것을 제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민주주의의 정치적 개인화, 자본주의의 경제적 개인화, 평등주의의 사회적 개인화가 모두 복합적으로 나타났음을 말한다.

개인주의를 조장하여 온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학교와 가정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의 지적향상만을 절대시하고 사회적 구성원으로서의 자질향상에 깊은 관

70) 윤영보(1994), 전계서, p.159.

심을 기울이지 않는 교육적 풍토, 대입이라는 목표를 향하여 모든 노력을 경주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배타적 경쟁심리와 내향적 자기중심주의 등 이러한 것들이 바로 오늘날의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을 대변한다고 지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적, 교육적 풍토 하에서 사람들로부터 애타적, 이타적 윤리관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특히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고 학습하며 사회화된 청소년들로부터 그러한 것을 바라기는 또한 쉽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효에서도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3) 反 禮儀主義

반 예의주의는 하나의 주의로서의 성격까지 지녔다고 볼 수는 없을지 모르나 예의 자체를 거부하거나 경시하는 일반적 주장이나 행동유형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이다. 반 예의주의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전통적인 윤리와 도덕을 부정하는 자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윤리적 전통을 忠孝敬長과 대립하게 되고 따라서 효윤리와 의 갈등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⁷¹⁾

반 예의주의는 사회의 기존 가치와 규범을 무시한 태도나 행동성향을 말한다. 만약 이 반 예의주의를 청소년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으로 본다면 청소년기의 정체성의 미확립 상태에서 있을 수 있는 기존질서에 대한 반항의식으로 풀이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현대인들의 보편적인 윤리문제로 본다면 아노미 혹은 무규범 상태에서 나오는 결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사회적 아노미로 생각한다면 한 사회의 행동규범이 체계적 붕괴로 인한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사이에 간극이 깊어짐으로써 나타나는 형태라고 볼 수 있고 또 심리적 아노미로 생각한다면 개인의 도덕규범이 혼란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형태라고 볼 수도 있겠다. 즉 예의 무관심주의는 두 가지 관점을 다 지닌 아노미현상이 낳은 반역형적 일탈행동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반 예의주의는 지적인 바와 같이 그 등장이 평등주의 및 개인주의와

71) 상계서, p.161.

보조를 같이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평등주의와 개인주의를 야기 시킨 사회적 분위기와 제반 여건이 바로 반 예의주의를 등장시켰다고 말할 수도 있다. 따라서 그 대표적인 영향요인으로 공업화와 가정 및 학교교육의 약화를 지적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본격화되기 시작한 공업화와 뒤따르는 도시화는 근본적으로 예의 자체를 배제 요소를 지니고 있다. 공업화가 함축하는 기계적, 기능적 사고방식은 그것 자체가 도덕성을 결여하고 있다. 그 위에 공업화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공업성의 논리는 도덕성을 전혀 지니지 않는 기술적 효용성만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또 공업화로 급조된 도시의 경우에는 아직도 예의규범 자체를 정착시킬 분위기를 지니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 예의주의를 조장한 또 하나의 요인인 가정과 학교교육의 약화는 도시화와 관련된 핵가족화 현상과 학교의 대형화에서 비롯된다. 종래의 대가족제도 하에서 권위의 상징이자 예절교육의 훈도였던 조부모가 동거하지 않는 데다 그 역할을 대신할 부모들의 경우에도 지나친 온정주의나 관용주의에 빠져 전통적인 예절교육을 무시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대형화, 과밀화되고 있는 도시학교 경우에는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예절교육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앞에 기술한 바와 같이 사회·가정·학교의 제 여건 하에서 자라난 청소년들에게 또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3개의 동인이 어떤 일관된 윤리와 행동규범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 하에서 어느 정도의 일탈행동이나 예의 무관심적 행동 성향은 필연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연장자와 부모라고 해서 그 예의 무관심의 대상에서 크게 예외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청소년들의 예의 무시주의는 효윤리와 의갈등요소로 남게될 것이다.

2) 청소년이 직면하는 효윤리와 의갈등상황

청소년이 가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현대윤리와 효윤리와 의갈등은 그들의 일반적

으로 지니고 있는 윤리 혹은 가치관과 효윤리 사이에 관한 것으로서 그 대표적 갈등상황은 주로 의사 및 행동결정 시에 부모의 지시에 대한 순종문제, 부모봉양문제, 그리고 장례제례에 있어서 야기된다.⁷²⁾ 이러한 비교적 현실적인 문제에 관하여 청소년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갈등을 느끼면서 당혹감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결정을 유보하고 망설일 수도 있다.

한 가정에서 청소년들이 중요한 의사 및 행동결정을 할 때 부모의 뜻을 어느 정도 따르고 또 순종하느냐 하는 것은 가장 혼란 상황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유교교육에서는 효가 모든 덕목의 기본이었고 부모의 뜻에 절대성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의 청소년들이 부모의 의사와 지시에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가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 몇몇 조사연구⁷³⁾에서 밝힌 것을 종합해 보면 청소년들이 부모의 지시나 명령에 대한 절대성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또 하나의 갈등상황은 부모봉양문제에 관한 것이다. 우리의 전통윤리에서는 '부모를 잘 봉양하는 것이 효도의 가장 높은 수준으로 꼽았고 불가의 「부모은중경」에서도 부모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는 왼편 어깨에 아버지를, 그리고 오른쪽 어깨에 어머니를 올려놓고 가족이 닳고 뼈가 다 없어지도록 수미산을 수천 번 돌아도 그 은혜를 갚을 수 없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무한정의 봉양에 관하여 우리 청소년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부모를 봉양하겠다는 기본자세는 분명하나 생활형편에 따르겠다는 서구식 합리성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가정에서의 갈등상황 중 마지막 사례는 행상제례 특히 제례에 관한 것이다. 우리의 전통적 효행은 부모의 사후에도 계속되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대표적 행사가 제사이다. 유교에서 부자의 혈연관계를 '천륜'이라는 말을 쓴 것이나 3년 상을 한 것 그리고 부모의 은혜를 산과 바다에 비교한 것은 모두 효를 부모의 사후인

72) 상계서, p.163.

73) 중앙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1973), "청소년의 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박홍수 외(1984), "한국인의 의식구조와 가치지향에 관한 조사", 조선일보.

내세에까지 연관시킨 것이다. 이에 관해 청소년들은 제사와 같은 전통의식을 존중하면서도 그것 자체를 실용성의 입장에서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이중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청소년들이 학교와 사회에서 경험할 수 있는 현대윤리와 효윤리와의 갈등은 그들의 현대적 윤리가 주로 경로의 윤리와 일으킬 수 있는 갈등에 관한 것이다. 그 갈등 장면은 청소년들의 스승에 대한 태도나 행동에서 그리고 일반적인 어른에 대한 자세나 행동에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스승에 대한 제자들의 존경은 거의 절대적이었다. '군사부일체'라고 하여 스승의 권위를 임금과 부친과 동격시켰고 또 제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것이 통념화될 정도였다. 그러한 절대적 존경은 많이 퇴색하고 있으며 또 실제로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가 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심각한 갈등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최근 학생들이 스승에 대한 존경하는 태도는 절대적이 아니 것으로 나타났고⁷⁴⁾ 스승에 대한 조심성도 매우 약해졌으며 학교에서의 교사와 학생간의 신뢰감이 무너지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다음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상황은 청소년들의 연장자 그 중 특히 노인들에 대한 자세와 태도와 관련이 있다. 우리 겨레의 윤리적 전통에 의하면 노인들은 신분, 재산, 또는 학식의 여하를 불문하고 젊은이들로부터 공경이 대상이 되고 이를 敬老의 미덕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연장자가 나이 하나만의 이유로 존경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렵게 되었다.

이상에서 볼 때 청소년들은 가정생활 속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 '부모의 말씀을 어느 정도 순종하는가, 부모를 어떤 식으로 봉양하는가, 그리고 제례를 어느 정도 지켜 나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끊임없는 갈등상황에 직면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조사에 따르면 오늘날의 청소년들로부터는 교사나 연장자라고 해서 무조건 양보나 존경을 기대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만약 연장자가

74) 윤영보(1994), 전제서, p.167.

전통적인 長幼有序觀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일방적인 敬老를 요구할 경우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태도 및 행동결정에서 심한 갈등을 느끼게 될 것이다.⁷⁵⁾

그래서 청소년들이 그러한 갈등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바람직한 윤리의식을 갖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정, 학교, 사회에서의 교육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3. 초등학생 효의식에 있어서의 문제

오늘날 일반적인 청소년들의 효윤리에 대한 의식을 보면 근래에 학생들은 미래의 국가사회 발전의 주역이라는 중요성에서 사회 국가의 관심이 증가되는데 반하여 학생들은 일탈행위가 증가되고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효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무관심하는 경향이 있게 되면서 효도의 실천적인 면에서 부정적인 행동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해 본 연구자가 초등학생의 효의식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사 대상 및 조사도구

효의식 실태조사는 제주도 초등학교 6학년 학생 712명을 대상으로 2001년 2월에 설문지로 조사하였다.

효 의식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효 요소별 내용은 <표 III-1>과 같다.

또한 수집된 자료를 각 문항마다 전체 백분율을 구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효 요소별 의식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75) 상계서, p.168.

〈표 Ⅲ-1〉 질문지 구성 내용

효 요소	문항	질 문 내 용
심신 건강	1	부모님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모든 행동을 바르게 하고 착한 마음씨를 가지고 생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나는 항상 집 밖에 나갈 때는 부모님께 인사하고 이야기 한 후 나간다.
보은 공양	3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님의 마음이 편하도록 잘 모셔야 한다.
	4	나는 부모님이 일하고 들어오시면 어깨를 주물러 드리는 등 위로해 드린다.
정의 공명	5	부모님께서 하시는 행동이나 생각이 잘 못될 때 자식들은 부모님께 내용을 정중히 말씀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6	나는 우리 부모님이 하시는 일이 옳지 못한 생각이 들면 타당한 이유를 들어 그 내용을 온순하게 말씀드린다.
순종 책임	7	무슨 일이든 부모님께 상의 드리고 부모님의 의견을 존중하며 따르도록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8	나는 부모님께 작은 문제라도 말씀드리며 하기 싫거나 마음에 들지 않아도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따른다.
미풍 계승	9	요즘 부모님의 제사를 소홀히 하는 것은 자식된 도리로서 잘 못되었다고 생각한다.
	10	나는 우리 집 제삿날 끝날 때까지 정성으로 참석하고 절을 한다.
명예 신념	11	부모님의 계시든 안 계시든 간에 부모님의 바램을 생각하고 가르침을 잘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2	나는 부모님의 말씀을 자주 되새기며 항상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한다.

2) 효 의식 실태

제주도 초등학생들의 효 의식 실태는 <표 Ⅲ-2>과 같다.

<표 Ⅲ-2> 제주도 초등학생들의 효 의식 실태

효 요소	N	반응 구분(%)					
		①	②	③	④	⑤	계
심신건강	712	1.9	3.4	20.5	31.5	42.7	100
보은공양	712	1.4	3.5	16.4	26.4	52.3	100
정의공명	712	1.7	6.3	26.7	29.9	35.4	100
순종책임	712	27.1	15.9	24.2	18.3	14.5	100
미풍계승	712	4.6	3.0	14.6	19.4	58.4	100
명예신념	712	4.5	10.9	32.4	29.6	22.6	100

첫째, 심신건강 효 요소에서 의식적인 면 전체 반응 결과는 긍정적인 반응이 74.2%, 부정적 반응이 5.3%로 나타났다. 제주도 학생의 대부분은 심신건강에 대해 높은 의식 수준을 보이고 있다. <남, 여> 긍정적 반응은 <여자>가 <남자>보다 높게 반응을 보여 여자가 부모님의 걱정을 덜 끼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족상황에서 <아버지하고 사는>학생이 부정적인 면이고 <어머니하고 사는> 학생은 긍정적으로 반응이 대조적이다.

둘째, 보은공양 효 요소에서 의식적인 면 전체 반응의 결과는 긍정적 반응이 78.7%, 부정적 반응이 4.9%로 긍정적인 반응이 높게 나타나 부모의 보은공양에 대한 의식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성별에 따른 보은공양 의식적인 면에서의 반응을 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6.2% 높게 '매우 그렇다'라는 반응을 보였으나 반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부정적인 면에서 <남자>가 12%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 <남자>는 보은공양 의식에서 이중적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가족상황에서 가정 결손이 실천적인

면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정의공명 효 요소에서 의식적인 면 전체 반응의 결과는 긍정적 반응이 65.3%, 부정적 반응이 8.0%로 긍정적인 반응이 높게 나타났으나 '그저 그렇다' 에서도 26.7% 반응을 보여 이 부분에 관심 있는 지도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성별에 따른 의식적인 면을 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매우 그렇다' 라는 반응에서 4.9% 높은 반응을 보여 <남자>가 <여자>보다 다소 정의공명에 대한 의식이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보호자학력과 가정 형편은 정의공명 의식에 다소 무관심한 것으로 보여진다.

넷째, 순종책임 효 요소에서 의식적인 면 전체 반응의 결과는 긍정적 반응이 32.3%, 부정적 반응이 43.0%로 이외로 부정적인 반응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사회적 결혼관의 변화와 개인주의적 경향, 남의 간섭을 배제하려는 현대적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가족 상황에서는 <핵가족>이 '매우 그렇다' 반응에서 14.0%로 가장 낮아 <핵가족>이 다른 가족 요인에 비해 더 개인주의적인 것으로 보여진다. 종교에서는 <유교>가 긍정적 반응에서 50.3%로 부정적 반응보다 높게 나타나 <유교>가 순종책임을 중히 여기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섯째, 미풍계승의 효 요소에서 의식적인 면 전체 반응의 결과는 긍정적 반응이 77.8%, 부정적 반응이 7.6%로 긍정적인 반응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적인 반응으로 보아 자식의 도리를 다하고 제사를 지내는 미풍계승에 대한 효 의식은 바라 짐 한 것으로 보여진다. <청소년 활동을 하는> 학생이 긍정적 반응에서 <활동을 하지 않는> 학생보다 8% 높게 나타나 이는 전통문화에 대한 청소년 단체의 활동의 영향이라고 보여진다.

여섯째, 명예신념의 효 요소에서 대한 의식적인 면 전체 반응의 결과는 긍정적 반응이 52.2%, 부정적 반응이 15.4%로 긍정적인 반응이 높게 나타났으며 명예신념에 대한 효 의식은 다소 바라 짐 한 것으로 보여진다. 명예신념에 대한 의식적인 면에서 먼저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자, 여자가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남녀> 모두 부모의 가르침을 따르고 가문의 명예를 중히 여기는 것으로 보여진다.

성별에서 남녀 모두 의식적인 면과 같이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가족 상황에서 특이한 것은 어머니와 사는 학생의 '매우 그렇다'라는 반응에서 26.0% 전체 반응보다도 높으며 이 변인에서도 가장 높은 반응이다.

이상의 실태를 확인한 결과 제주도내 초등학생들이 효의식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효 요소는 보은공양, 미풍계승, 심신건강, 정의공명, 명예신념, 순종책임 순이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순종책임 효 요소는 가장 낮은 반응을 보인 점이다. 이는 현실적이고 시대적인 변화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의식적인 면과 실천적인 면이 일치되지 않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의식적인 면은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고 실천적인 면은 낮은 반응을 보여 효 실천을 위한 계획과 방법이 모색되어야 하리라 보여진다.

청소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참여하지 않는 학생보다 대부분 효 요소에서 반응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청소년 활동은 권장할 만 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 외에 보호자 학력은 대체로 높을수록, 가족상황은 결손이 없고 안정될수록 효 의식과 실천이 높음을 알 수 있고 보호자 직업은 별로 반응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본 조사와 선행연구⁷⁶⁾의 결과에서 나타난 학생들의 효의식에 있어서의 문제점만을 살펴보자.

부모님의 낳아주시고 길러 주심에 대하여 매우 감사하게 생각은 하고 있으나 산업화된 도시사회와 물질을 중시하는 사회적 주위환경의 영향으로 점차 퇴색되어 가고 있다. 또한 경제적인 문제로 자신의 희생이 따르더라도 부모를 잘 봉양하여야 한다는 의식이 높으나 핵가족화의 영향으로 자기 희생을 피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으려는 진보적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생전의 부모의 뜻과 가르침을 잘 실천하거나 유지를 따른다는 의식은 가지고 있으나 부모의 유지를 무조건 따르려는 생각이 많이 퇴색되었고 자기 자신을 가치판

76) 강석봉(1994), "전통적 효요소에 의한 효의식 조사연구",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최순호(1996), "국민학교학생의 효의식에 대한 조사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단의 중심에 두려고 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건강에 대한 부모님의 자애심을 잘 인지하고 있었고 자신을 위해서도 부모님을 위해서도 건강해야 된다는 자각은 하고 있으나 이것을 그대로 실천행위로 옮겨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가정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부의 절대적 영향 하에서 가족 모두의 공동체 의식으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자기 자신의 가치판단에 합치되는 지시에만 순응한다는 의식을 가져 무조건 순종하는 효관념이 사라지고 있다.

경로효친의 실천면에서 남의 눈을 의식해서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실천에 옮기려는 의지도 부족하였으며 부모님을 가까이서 모시는 것도 좋지만 효도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한 떨어져 모셔도 관계가 없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며 이를 실천에 옮길지는 두고봐야 알 일이다. 그리고 조상의 제사나 성묘에 참여하려는 의식도 점차 사라지고 있다.

자신의 대한 작은 일이라도 부모님과 상의 드리는 것은 좋으나 의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면 자기 마음대로 하거나 다른 방법이나 대상을 찾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부모님을 기쁘게 해 드리기 위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상으로 볼 때 현대 학생들의 효의식은 아직 염려할 단계는 아니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이상과 현실, 가치와 실천간에 괴리가 심해져서 점점 퇴색되어 가는 경향으로 변화되어 앞으로 가정, 학교, 사회가 연계되어 현대적 효윤리관 정립과 함께 바람직한 효윤리의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교육방안을 제시하고 청소년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IV. 효윤리 실천을 위한 교육방안

1. 가정에서의 효 교육

우리는 예로부터 태교라 하여 어머니의 건전한 정신과 아름다운 정서는 태아에게 직접 영향을 준다고 하여 중히 여겨 왔으며 실천해왔다.

인간이 가장 먼저 알게되는 곳이 가정이다. 실로 우리들의 가정은 인간이 만나는 가장 최초의 생활무대이며 정신적 체험의 장이다. 그러나 최초의 무대인 가정에서의 경험은 가정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사회적 관계에 원형으로 작용한다. 이와 같이 가정은 인간 내지 사회생활의 기본적인 바탕이 되기 때문에 '인간은 가정안의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속담에 '세살 적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다. 사회생활의 기본적 바탕을 마련해 주는 가정이 가지는 교육적 중요성을 이보다 적절하게 표현한 말을 달리 찾아보기 힘들다. 예나 지금이나 자식을 가르치는 중심은 가정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교육이라면 우선 학교를 연상하리 만큼 자녀의 교육은 의당 학교에서 맡아서 하는 것으로 알기 쉬울 뿐 아니라 결과의 잘잘못까지도 학교의 책임인 양 오해하는 사람들의 많다. 사실 자녀의 지능이나 성격이 발달에는 학령에 이르기 전에 가정에서의 부모의 교육과 감화가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자식을 가진 부모는 누구나 다 자식이 잘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진정으로 내 자식을 위한 교육은 가정교육이라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또한 학교에서 돌아온 자식들을 여러 학원으로 내보내는 것으로 부모의 할 일을 다하는 훌륭한 부모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부모가 많을수록 가정교육은 실종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남들이 효자라고 일컬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은 우선 가정에

서의 부모의 분위기가 어떻게 조성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므로 교육의 일차적인 책임은 부모가 져야 할 것이다. 예로부터 부모가 어버이로서 할 일을 당연히 해야 자식도 자식의 도리를 다하게 되는 것이다. '어버이가 자식을 사랑해야 그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게 된다.' 하여 「父慈子孝」란 말이 있었다.

오늘날 산업사회로 인한 사회변화에 따라 그 부산물로 나타난 가정부재의 비극과 이에 따른 교육부재와 인간부재는 어찌면 가정교육의 부재와 윤리의 타락 쪽에 그 책임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가정부재와 가정에서의 교육부재의 현상은 결국 인격형성은 물론 청소년들의 이유 없는 반항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문제들을 유발시키고 있다.

현대 가정이 비록 그 바탕과 구조가 흔들리기는 했으나 오히려 오늘의 가정이 새로운 의미의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함은 말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오늘의 가정의 밖에서 피로해진 인간의 휴식하는 점에서 성인들이 안정화의 기능을 살려야 할 것이다.

성인들의 심리적 안정 그 자체는 결국 가정의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분위기 조성은 물론 한 걸음 더 나아가 청소년들을 사회성원으로 형성하여 가는 사회화의 장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다고 본다. 이것으로 보면 가정은 그 자체만으로도 청소년의 심리 및 인격형성의 기본적인 장인 것이다.

그러므로 일반 교육자의 입장에서 가정은 성인들을 위해서는 안정의 장으로 청소년을 위해서는 사회화의 장이란 중요한 교육적 의미가 살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의 가정은 이러한 교육적인 기능을 상실하고 있음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처럼 교육적 기능이 상실되어 가는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족간의 이해와 협동, 애정을 통한 원초적이고 인간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가정을 만드는 데는 효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효를 중심으로 한 가정윤리를 확립할 때 가정의 생활 양식이나 가족간의 관계가 획일화, 평균화, 비개성화되는 것을 막아 개인의 정서적 안정을 꾀하고 가족간의 친밀감을 강화시켜 줌으로써 점차 공동체의식을 확립하여 사회환경을 정화 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 전통사회의 효 교육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가정이 살아 있는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함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전통적인 효가 오늘날 그대로 생활의 원리로 활용될 수도 없고 동일한 생활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거기에는 반드시 오늘날 가정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담겨 있으리라고 여겨진다.

효가 확산되면 사회윤리, 국가윤리가 되지만 근본적으로 효는 부모와 자식간에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므로 효윤리를 가르치는 일이나 실천하게 하는 일이 모두 가정교육에서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이다. 효를 실천하는 주체는 청소년이지만 그것을 제대로 실천하느냐의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는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는 전통적인 효를 요구하기보다는 현대에 필요한 효도의 의미를 자녀들이 올바르게 인식하여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대에서는 '효를 부모에 대한 은공 보답, 자신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일, 가족간에 화목하는 것, 부모의 소박한 소망에 부응하는 일, 부모에게 심려를 끼쳐 드리지 않는 일'⁷⁷⁾이라 하며 이를 실천하도록 가정교육의 전통을 되살리면서 현대사회에 알맞은 효윤리 교육을 가정에서부터 강화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그러면 오늘날 가정에서 살아 있는 효를 실천하려면

첫째, 효도를 실천하며 가르치는 부모상의 정립이 필요하다.⁷⁸⁾

효도를 하고 싶어도 부모가 계시지 않음을 한탄하면서 후회하는 말과 글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이야기와 글을 들려주고 읽히려는 노력이 가정에서는 부족하며 오로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문제풀이만이 공부의 전체이고 끝인 양 생각하고 있는 실정이다.

77) 이영노(1991), "전통적 효사상의 현대적 의의와 실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p.23~24.

78) 윤팔중(1985), "가정에서의 경로효친교육", 「경로효친의 교육」, pp.184-205.

한 가정에서 효를 보다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가르쳐 올바른 인간으로 기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모가 몸으로 실천해 자식들에게 보여주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효 교육은 단 한번만이 모범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매일 매일의 생활에서 몸이 배이도록 함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가정단위로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에 반드시 자식들과 함께 참여하여 노인을 공경하고 받들어 모셔서 어버이에게 효도하는 법도와 이치를 실제로 행하게 하는 것은 훌륭한 가정교육이며 효를 실천하는 동기를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가정을 대화의 장으로 조성하는 일이다.⁷⁹⁾

청소년의 반항은 오늘날 전세계적인 현상이다. 부모가 많은 말을 하기 전에 지식들의 삶에 대한 질문과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마음을 여는 것과 대화의 기술을 배우는 데서부터 가정의 교육과 실천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올바른 경청이 있는 곳에 진정한 응답이 있으며 그 속에서 대화는 새로운 차원으로 열려져 나의 근본과 인생의 근본을 깨닫게 하는 천륜의 정을 느끼게 하는 훌륭한 윤리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다.

가정의 살아 있는 교육의 장이 되려면 부모와 자식 사이의 대화는 사랑의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 세상에 사는 인간의 사랑 가운데서 항상 내어주고 무제한으로 자기를 희생시키는 사랑은 자식에 대한 부모의 내리사랑보다 더 한 것은 없는 것이다. 이렇듯 부모와 자식간의 사랑은 어느 시대에나 아름답고 고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부모의 사랑에 대하여 자식은 존경과 사랑으로 응답하는 효도의 실천이 있어야 하고 부모는 자식을 훌륭하게 기르려는 건설적인 교육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셋째, 신의 있고 성실한 부모상을 언행으로 보여주는 일이다.⁸⁰⁾

79) 신정남(1983), "전통적 효사상의 조명",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p.49.

80) 김대환(1987), "가정교육의 기능향상", 『사회의 학교화』, 서울시교육위원회, p.294.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성실한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바라기보다는 힘들이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손쉽게 많은 것을 손에 넣으려는 사람들에 의해 저질러진 사회의 병리현상이 곳곳에서 터져 나와 성실히 살아가려는 많은 사람들로 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돈을 벌더라도 하루아침에 부정을 저질러서라도 출세하여 단번에 감투를 써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회에서 성실한 자세는 길러질 수가 없다. 한 가정에서도 부모의 성실함이 없는 가정의 자식이 성실한 사람으로 길러지기는 어렵다.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출세주의, 배금주의, 간판주의, 이기주의, 권위주의는 도덕적 모범이 되어야 하는 부모의 가치관을 깨뜨리고 여과되지 않은 채 대중매체를 통하여 그리고 부모의 옷자락에 묻어서 가정의 울타리를 넘나들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나 가정에서 그와 같은 생각을 지닌 사람의 수가 늘어나게 되면 서로 불신하게 되어 좋은 인간관계를 이룰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불신 속에서는 이웃사이의 따뜻한 정도, 노인을 공경하는 마음도, 자식에 대한 무한한 사랑도, 어버이에 대한 효도도 찾을 길이 없어진다.

결국 부모는 부모다워야 할 것이다. 가정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대한 교육에 앞서 부모로서의 수범을 보이지 못한다면 자녀가 부모에게서 그 어떤 것도 본 받을 것이 없다.

효도하는 부모 슬하에 효자가 생겨남은 당연한 이치이다. 자녀는 부모에게서 사랑과 존경을 배우고, 형제간의 우애, 친족간의 돈독, 예의와 규범을 익히고 이웃간의 정과 나눔의 기쁨을 체득하게 된다.

자녀는 부모로부터 사회화 과정을 익히게 되고 인간화 과정을 밟게 되는 것이다.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다할 때라야 가정에서의 효 교육 기능이 회복될 것이다.

넷째, 어버이끼리 夫婦禮敬이 존재하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

아무리 부부간이라 하여도 지켜야 할 규범과 절제가 있어야 한다. 가끔 우리 주변에서 부부간에 애정이 없고 예나 경이 없어 화목하지 못한 부부들이 자식들 앞에서 서로 흉을 보거나 욕설을 하는 등 부부간에 비방과 잘못을 모두 한쪽으로 돌려버리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자식교육에 좋지 않으리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

이다.

따라서 각 가정에서는 좋은 어버이상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여 가족사이의 화목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자연스러운 대화의 장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원초적 사회화의 장인 가정에서 아이들은 질서의식, 사회의식, 규범의식, 법의식의 기초를 배우며 도덕성을 길러 나간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매사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성실히 일하며 자기 책임을 다하고 법을 지키려는 준법정신과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동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인격을 길러 주어야 한다.

부모가 불성실하고 무책임하면 자식들은 그대로 부모를 본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부모는 사회의 규범을 아이들에게 최초로 전해주는 사회의 거울이며 시범자가 되어야 한다.

다섯째, 아버지의 위상이 회복되어야 한다.⁸¹⁾

맞벌이 부모가 늘어나고 여성의 지위가 향상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고개숙인 아버지 상에서 옛날의 권위를 찾아보기가 힘들다. '엄부자모'라는 부모의 가르침이 먼 옛날의 얘기가 되 버렸다. 여기서 그 옛날의 권위를 찾자는 것은 아니다. 요즘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목표와 방향, 사고방법, 행동양식을 가르치기보다는 자녀들의 주장대로 따라 가거나 방임 내지 내맡기는 가정이 많아지고 있다.

아버지의 위상은 옛날의 권위적인 존재로서가 아니라 한 가정의 아버지가 출타중이나 안 계시더라도 아버지가 항상 옆에 계신 것처럼 언제나 따뜻한 부정을 느끼게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 그리고 아버지의 존재를 일깨워 주는 어머니의 역할도 중요하며 이를 위해 아버지 자신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자녀들에게는 올바른 가치관과 도덕적 분별력을 키워주어야 한다.⁸²⁾

사람은 혼자서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이다.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거나 손해를 보게 해서는 안 된다. 자녀들로 하여금 공중도덕을 준

81) 김병수(1997), "경로효친의 정신계승을 위한 기본생활습관의 형성 방안", 「교육제주」, 제주도 교육청, p.25.

82) 상계서, p.26.

수하게 하거나 민주시민의식을 갖도록 가정에서의 생활습관으로부터 옳고 그름의 판단능력을 길러 주는 일, 사회가 요구하는 예의범절과 규범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가르쳐주어야 한다.

옳은 것은 옳다고 가르치고 옳지 못한 일은 그 싹부터 자라지 못하도록 단호히 규제해야 한다. 여기에 관용이나 너그러움이 있어서는 후회하게 될 것이다.

일곱째, 자녀를 응석받이로 만들지 말고 강인하게 만들어야 한다.⁸³⁾

자녀들을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강하고 튼튼하게 키워야 홀로서기를 제대로 하게 될 것이다. 어린 시절 부모가 일깨워 준 가르침을 성장과정에서 스스로 자각할 때 부모에 대한 존경심과 효심이 절로 우러날 것이다.

우리는 사랑스런 자녀를 강인하게 키우기 위해 '자녀를 높은 산에 오르게 하라, 자녀에게 되도록 심부름을 시켜라, 자녀를 아침에 스스로 일어나게 하라, 자녀를 위해 우산을 갖고 학교에 마중 나가지 말라, 자녀의 방을 부모가 대신 치워주지 말라, 자녀를 버스에서 자리에 앉게 하지 말라, 귀여운 자녀일수록 여행을 시켜라' 라는 외국의 한 수련원에 붙여있는 구절처럼 부모는 자식들을 강인하게 키워야 할 것이다.

여덟째, 학교와 사회와의 연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⁸⁴⁾

효윤리는 가족윤리에서 출발하여 사회공동체의 윤리로 정착되므로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또한 이러한 교육은 다른 교육과 마찬가지로 이해하고, 익히고, 마음먹은 바를 실천에 옮기는 데는 많은 요소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학부모와 지역사회 사람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하고 학교와 사회가 교육적 분위기를 개선하는데 참여하여야 한다. 학교에서는 학부모 교실이나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활동과 사회에서 지역사회의 인적자원을 활용한 활동이 함께 이루어질 때 그 효과는 배가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가정에서의 효 교육 실천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83) 상계서, p.26.

84) 양방주(1997), "학교 경로효친 교육과정의 체계화", 「교육제주」, 제주도교육청, p.17.

먼저 효 교육에 알맞은 가정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⁸⁵⁾ 가정에서의 효 교육을 위해서는 그 가정 안에 경이 대상인 노로서의 조부모와 효의 대상인 부모가 있어야 좋을 것이다.

청소년들로서는 효 교육을 배울 완전한 대상을 가진 셈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산 교육의場 안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 부모가 조부모를 모시는 모습에서 저절로 효 교육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동거하는 조부모는 훌륭한 효 교육의 대상인 것이다.

그래서 부모는 살아 계신 부모님을 모시거나 돌아가신 부모님의 제사를 모시는 것을 기쁘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는 부모가 효도를 실천할 수가 있으며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본받아 후에 자식이 부모와 같은 길을 가도록 하는 산 교육이 될 것이다.

그러나 어떤 상황 때문에 조부모나 친부모와 함께 동거하지 못하는 가정환경에서는 친족 중에 대리부모나 조부모를 대신할 대상이라도 가까이 있거나 결연 등과 같은 방법으로 그 대상이 있게 된다면 그 차선택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가정에서의 효는 그것을 행하는 가운데서 배우는 것이며 효를 행하자면 그 대상이 있어야만 할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이 자라는 가정에 웃어른이 함께 계셔서 언제나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 바로 그것이 훌륭한 효의 이해이면서 동시에 실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일상생활에서 청소년들이 모범을 본 받게 해야 한다.⁸⁶⁾

이러기 위해서는 나라에 국시가 있고 학교에 교훈이 있듯이 가정에 가훈을 정하여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생활의 목표를 심어주며 가훈을 실천하기 위하여 자녀들은 여러 가지의 생각과 행동들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 될 수 있음은 물론이며 가족을 하나로 묶는 구심점이 될 것이다.

그리고 가정에서의 부드럽고 온화한 말씨를 서로 쓰는 일인데 언어 그 자체가 습관이기도 하지만 가족사이의 인간관계에서 품위 있고 아름다운 말씨를 쓰는 버릇은

85) 윤영보(1994), 전계서, p178.

86) 상계서, p.185.

어려서부터 길들여져야 한다. 다 자란 다음에 잘못된 말버릇을 고치기는 여간 힘들며 다 큰 자녀에게 말씨를 바로 잡아준다는 것은 부모나 자녀에게도 바람직한 일은 아니며 부모의 잔소리나 자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되어 가족간의 인간 관계가 흠이 생기게 될지도 모른다.

부모가 어려서부터 익혀서 몸에 밴 대로 경로효친의 표현에 알맞은 말씨를 씀으로써 자녀들도 부모를 따라 올바른 높임말을 쓰게 되는 것은 자연스런 善循環인 것이다.

또한 효 교육에 있어서 가정의 일상생활 중에 모범을 본 받게 하는 것 중 중요한 것은 말씨와 더불어 몸가짐이다.⁸⁷⁾ 가정에서의 구체적인 한가지 한가지의 몸가짐을 올바르게 배우고 형상적으로 행하도록 부모는 본 보여야 한다. 오늘은 오늘을 사는 몸가짐이 따로 있어야 하겠지만 반드시 어른을 어려워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가정행사에서의 예절을 따르게 하는 일이다.⁸⁸⁾

가정에서의 효 교육을 위한 가장 좋은 계기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갖가지 행사일 것이다. 이 때에는 서로 떨어져 살던 가족과 친척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이게 되기 때문에 가족간의 위계가 다양하게 나타나 경과 효의 의미를 경험하게 되고 행사라는 특성 때문에 분위기가 정돈되어 효의 실천에 대한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될 것이다. 즉 효를 행하는 이치를 깨닫게 되고 깨달은 이치대로 행하게 하는 훌륭한 교육의 과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행사에는 명절 지내기, 제사 지내기, 생신잔치 치르기, 어버이날 보내기 등이 있으며 이 때에 가족성원이 행사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것을 존중하여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리하여 가정에서는 전통적인 효윤리의 실천을 강요하기보다는 현대적이고 합리적인 효윤리를 정립하여 실천하도록 하며 부모가 제반 가정 여건을 조성하여 자녀

87) 상계서, pp.188~192.

88) 상계서, pp.192~201.

들과 항시 대화하고 접촉하면서 참사랑으로 대하고 솔선수범하여 본보기를 보여줌으로써 효윤리에 대한 교육이 부단히 이루어지고 그리고 학교와 사회가 연계하여 관심가지고 협력할 때 그 실천에 있어서도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2. 학교에서의 효 교육

우리의 교육을 사람들은 “황폐할 대로 황폐한 교육”이라고 부르고 있다. 또 교육을 그런 양상으로 방치하고 있는 한국을 “내일을 등지고 사는 나라”라고 한탄한다.⁸⁹⁾ 또 우리나라의 교육은 많은 비난을 받아 온 것도 사실이다.

교육의 중심에 있는 학생에 의해서, 학부모에 의해서, 그리고 교사를 포함한 교육자 자신에 의해서 우리나라 교육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학교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이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지적으로 영민하고, 성격적으로 원만하며 의지적으로 투철하고, 도덕적으로 올곧게 자라주기를 바란다.⁹⁰⁾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교육으로는 정신적으로 숭고하고 도덕적으로 건실한 신념이 바탕이 된 인간 존중정신과 경애정신을 가진 인간, 애국심과 민족정신이 투철한 인간으로 자라주기를 바랄 수 없을 것이다.

한국인의 전통적 가치관은 생리적, 심리적 특성보다는 도덕적 가치에 중요성을 두어왔다. 전통적 유교교육이 가르치는 도덕이란 법도와 진리를 말한다. 그러기에 유교의 도덕은 청소년의 인격과 정직, 친절과 성실성 등과 같은 덕목을 포함하는 일종의 성품과 특성의 개발이었다. 따라서 한국인은 도덕이라는 기준 위에서 생활해 와 “이것이 도덕적이냐”하는 것이 생활의 기준이 되어 왔다.⁹¹⁾

89) 정범모(1991), 「한국교육의 진단과 전망」, 도서출판 나남, p.18.

90) 상계서, p.120.

91) 손인수(1991), 「한국교육의 현재적 진단」, 배영사, p.84.

우리의 전통적인 학교교육은 효사상을 담은 경전을 중심으로 가르쳐 왔다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교육은 특히 인격형성에 필요한 도덕함양에 중점을 두고 인, 효, 충, 효, 충서 등을 강조하여 사회윤리로 발전시켜 나갔다고 할 수 있다.⁹²⁾

그래서 조상들의 생활의식 속에는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과 자식을 사랑하는 애경 정신과 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심과 충성심이 있었기에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빛낼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의 건국이념인 홍익인간의 윤리정신은 순수한 인간의 본성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타의에 의해서 마지못해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순수한 인간애의 표현이다.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가치관이 신념화되어야 하고 자기 중심적인 행동이나 이기주의적 윤리는 용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의 작은 힘이 국가나 사회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기꺼이 소아를 버리고 대아를 살리는 것이 홍익인간의 기본정신인 것이다.⁹³⁾ 이렇듯 우리 민족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나라를 소중히 여기는 사상을 뿌리 깊이 간직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의 전통적 정신에는 인간존중의 정신과 애경의 정신이 한결 같이 나타나고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실천적 의미를 지니는 것이 경로사상으로써 이것이 가정 안에서 나타나면 효가 되고 가정의 범위를 넘어 사회적으로 확대되면 웃어른을 공경하는 경로사상이 된다. 또한 국가적으로 확대되면 충이 되었던 것이다.

효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고자 할 때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도리이다. 그러기에 우리의 효는 경로사상과 연결되어 연로하신 아버지를 대하듯 이웃 어른을 공경스럽게 대하도록 가르치고 이것을 실천하도록 한 것이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인간존중과 경애사상이 있었으므로 곧 객관적인 법률의 발달 없이도 주관적인 자제와 도덕률에 의해 가정과 사회질서가 올바르게 유지되어 왔

92) 백남철(1981), 「충효의 실상」, 우성출판사, p.146.

93) 윤성범(1965), 「종교와 효도」, 을유문화사, pp.16~19.

다.⁹⁴⁾ 그러나 많은 사회적 여건 변화로 인하여 오늘날의 학교교육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개인 이기주의와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하여 사람들은 마음의 여유를 잃게 되었으며 관용과 겸손 등 우리 민족의 전통윤리 가치 덕목이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기에 우리의 윤리교육은 우리 본래의 전통 효윤리 사상에서 재발굴, 재창조하여 정립해 나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학교에서 지도되어야 할 효 교육의 실천과제를 살펴보면

첫째, 일상생활에 적용되는 기본생활 습관을 형성시켜 주는 일이다.⁹⁵⁾

사실상 우리 주변에서 생기는 많은 도덕적인 문제는 익숙하고 세련된 행동을 하지 못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신중성과 성실성이 결여된 행동이 가져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여된 행동은 저마다 다른 가정에서 형성된 행동습성들이므로 학교는 이러한 습성들을 교정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비교적 좋은 가정에서 자란 학생들은 표준적 습성을 따르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잘못된 습관을 교정해 주어 생활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물론 상황에 따라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행동방식이 표준적인 것으로 반드시 정립되어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교사의 지도기준도 반드시 일정한 표준에 따른다고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또 법률이 아닌 도덕적인 문제는 객관적인 표준이 있을 수도 없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보다 아름답고 도덕적이며 가치로운 행동을 예의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지도되어야 하겠다.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습관의 지도란 규격화된 생활방식으로 길들이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 및 감정과 인격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을 향상시키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일상적인 상태에서 자신의 태도와 감정에 대하여 반성하고 검토하도록 하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94) 손인수(1991), 전계서, p.97.

95) 이규호(1983), 「국민윤리 교육의 이론과 실제」, 문우사, p.276.

효는 반드시 극단적으로 이례적인 상태에서 비범한 사람들만이 실천하는 정신이나 덕목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평소에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효를 생활화하기 위해서는 효 교육은 예절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예절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데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처 번째로 꼽아야 할 요건이므로 예절교육이 이루어진다면 효 교육은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다.

둘째, 대상에 따라 공경할 수 있는 태도를 길러주는 일이다.⁹⁶⁾

효사상은 일차적으로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로써 의무감을 중요한 특징으로 한다.

그러므로 효친의 행동이나 생활에 있어 존경과 공경의 마음이 따르지 않는다면 아무리 일관되고 세련된 행동이라도 도덕적으로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 그것은 효의 덕목 그 자체가 부모나 어른에 대한 깊고 따뜻한 존경과 공경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효사상이 요구하는 존경과 공경은 반드시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나 웃어른들에게 본능적으로 가지는 인간의 소박한 감정의 표현으로만이 아니라 꾸밈없는 마음과 도리에 맞고 보기에 아름다운 행동으로 실천되어 마음의 따뜻함과 정성 그리고 성실이 있어야 하고 법도가 따라야 하는 것이다.

셋째, 효 교육 내용에 관한 효과적인 지도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⁹⁷⁾

효 교육 내용은 전교과에 반영되어 있는 편이나 관련 내용이 비교적 체계있게 반영된 교과는 도덕과(바른생활)이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효교육 지도가 체계적으로, 실제적으로 지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감화나 감동을 주지 못해 효 교육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나 최근에는 인성교육 중요성이 대두되고 사회적, 국가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다양한 자료의 개발과 활용으로 점차 바라지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본다.

아무튼 효와 관련된 개념의 명료화, 문제사태에 대한 자율적 사고, 실천동기 강화

96) 국민윤리교재 편찬위원회(1983), 「국민윤리」, 단국대학교출판부, p.81.

97) 한명희(1991), “교과서에 반영된 경로효친의 내용과 지도방법”, 「경로효친의 교육」, p.206.

에 주안점을 두고 적절한 교수·학습방법을 모색하여 집중적으로 지도되어야 하리라 생각된다.

「오늘날 효라고 하면 부모를 물질적으로 봉양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짐승도 먹여 기르는데 공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짐승을 기르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라는 내용이 도덕과와 국어과에 들어 있다고 할 때 같은 내용이라도 그 지도방법은 달라져야 하는 것이다.

즉 도덕시간에는 이 내용에 포함된 주요개념인 효, 봉양, 공경 등에 대한 의미를 밝혀 이들 개념간의 상호관계를 이해하여 효라는 것은 물질적 봉양이 아닌 정신적 봉양의 바탕이 되어 이루어질 때 진정한 효가 됨을 스스로 깨닫도록 지도되어야 한다.

그런 후에 효도의 즐거움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지혜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실천계획을 세우고 이를 검토하는 과정까지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어시간에는 이 문장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공경의 정신이 밑바탕이 되고 정신적 봉양의 참된 효임을 이해하고 심화될 수 있도록 부모님께 편지를 올리거나 효에 관한 글을 짓게 할 수 있으며 효행 이야기를 극화하여 간단한 역할극을 함으로써 실천의지를 길러 내면화 시키는 지도가 되어야 한다고 여겨진다.

이와 같이 같은 내용이라도 교과 특성에 따라 적절한 지도방법을 모색하여야 효 교육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학교의 효 교육장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는 단순한 효 교육의 내용과 시간 수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학교 구성원의 의식변화와 교육과정의 체계적 시행으로 가능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전 구성원 특히 학교 경영자와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이루어 져야 하며 관련교과에서 효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내용 재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정규교과 지도 외에 다양한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경제적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넷째, 교육자 자신이 효를 실천하는 사회의 귀감이 되어야 한다.⁹⁸⁾

학생들에게만 효를 실천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교육자 자신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웃어른을 공경할 때 효 교육은 생명력을 지닌 산교육이 될 것이다.

이러한 교육을 위해서 교사는 먼저 제자를 인격적으로 대해야 한다.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대우하라는 말처럼 모든 사람 중에 하나인 제자들에게 자식처럼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면 그들도 모든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할 것이다.

그리고 교사는 정직하게 가르쳐야 한다.⁹⁹⁾ 기술과 요령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진실하게 가르쳐야 한다. 그래야 제자들도 교사를 존중하게 된다. 제자들은 교사의 표정과 언동에서 그 교사의 마음을 읽는다. 교사가 진실을 은폐하고 인기만을 생각한다면 제자도 그와 같은 길을 가게 마련이다.

그래서 교사는 제자들에게 진실하게 가르쳐야 하고 진실하게 가르치려면 자신에 약점과 허물이 없어야 한다. 여기에서 인격 대 인격의 만남 즉 교류가 있게 되어 훌륭한 스승 밑에 훌륭한 제자가 나온다는 것이다.

또한 교사는 효의 중요성을 제자의 의식 속에 깊숙이 내면화 시켜주어야 한다. 왜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해야 하는가? 효윤리를 준수할 때 자신과 가정과 사회에 돌아오는 희열은 어떠한 것인가를 제자들에게 예상해 보도록 지도하거나 효와 관련된 활동을 통하여 효도가 얼마나 중요한 도덕적 가치인가를 그들의 의식 속에 깊숙이 심어 주어야 한다.

다섯째, 가정과 사회와의 연계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학부모의 높은 교육열과 다양화된 교육기능을 보완하고 학교교육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가정과의 연계교육은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학교가 의도적으로 펼치는 교육활동에 학부모가 함께 동참하여 나서야 한다. 종래에 학교에만 의존해 왔던 자녀교육의 틀에서 벗어나 학교와의 유대, 가정과의 유기적 대화 상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98) 정병진(1997), "경로효친의 생활화 교육방안", 「교육제주」, 제주도교육청, p.43.

99) 안창범(1997), "경로효친교육의 지도 방향과 한계", 「교육제주」, 제주도교육청, p.21.

사회는 제2의 학습의 장으로서 학생들에게 본을 보여주며 웃어른 공경하고 존중하는 태도와 사회 풍토, 사회에 봉사하는 사회의 분위기가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학부모회나 어머니회, 마을 스승 등을 통해 가정, 사회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우는데 협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효 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¹⁰⁰⁾

현재 시행되고 있는 효 교육은 교과서를 제외하고는 각양각색의 교재들을 사용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에는 내용이 특정 종교사상에 치우치거나, 구시대의 것이어서 비현실적이거나, 지나치게 관념적이거나, 이상적인 것들이 많다. 학문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것들도 많다.

따라서 윤리학적·교육학적 검토를 거치고 그 동안 이루어진 수많은 연구들을 참고로 하여 효의 내용과 성격, 의의, 효 교육의 목적과 내용, 방법을 체계적으로 다룬 교재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학교에서의 효 교육 실천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학교 효 교육과정의 체계화가 되어야 한다. 효 교육의 성격과 목적에 맞는 효 교육의 내용 선정과 조직을 충실히 하고 효 교육의 교수·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¹⁰¹⁾

효 교육에 관한 지식, 덕목, 행동양식과 같은 기본적인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시키고 설득시킨다. 도덕적 자아의 형성이나 문제 상황의 파악과 문제해결 방법을 스스로 찾게 하는 등의 가치, 태도 및 지적기능은 탐구식 방법에 의하여 스스로 체득하고 인격화하도록 한다.

효 교육의 지도 방향은 가치관 교육에 입각하여 도덕적 자아가 형성되도록 지도하고 심성교육적 차원에서 인격적 감화가 이루어지도록 지도하며 인간화 교육차원의 행동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각종 행사지도에 있어서 학생들의 개성을 존중하고 사회성 발달과 정서의 순화, 도덕성 함양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100) 양방주(1997), 전계서, p17.

101) 상계서, pp.14~16.

그 다음으로 인격감화와 훈화 및 대화를 통한 효 교육이 이루어 져야 한다.¹⁰²⁾

한편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는 사제사이의 관계를 중시해왔다. 문화적으로 횡적인 관계보다는 종적인 인간관계를 강조해왔기 때문에 사제사이의 관계는 부자사이의 관계만큼 중시되었다. 그러나 근래에 점차 그 농도가 희박해져 가거나 종래와는 다른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관찰하게 된다.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에서 그렇지만 사제관계에서도 인격적인 기본 신뢰감을 쌓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교사는 학생활동을 돕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학생들이 믿고 또 교사는 학생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는 것을 서로 믿는 관계를 인식해야 한다. '자식은 부모를 닮고 학생은 스승을 닮는다'는 속담이 있는데 이는 가정에서는 부모가 본을 보여야 하고 학교에서는 스승인 교사가 본을 보여야 한다는 뜻이다.

학교에서는 훈습을 통하여 효 교육이 이루어진다. 교육은 교사가 일방적으로 가르치기만 하고 학생들은 배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教와 學은 相伴이고 相長인 것이다. 서로 함께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다. 그래서 진정한 효 교육을 위해서는 먼저 교사가 효를 몸에 배게 하고 그것을 본보기로 학생들이 저절로 따르도록 즉 학생들을 훈습하기 전에 교사들 자신이 훈습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화를 통하여 효행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현대적인 생활의 근본에서 전통문화와 연결된 기본윤리를 체험할 수 있어야 하고 체험된 기본 윤리를 우리 세계관의 체계 안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는 이해된 기본윤리를 현대인의 언어를 통해 표현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과정을 거치기 위해 학교에서 교사와 제자, 학생과 학생 사이의 대화를 통한 효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대화를 통한 교육 방법은 우선 토론의 방법이 있는데 이 때 효에 관한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를 다루며 그 갈등의 대안이나 결과를 조사하여 평소 생각하지 못했던 자기 가치에 대한 비판의 기회를 갖게 하고 효에 대한 명료화 토론을 거침으로써 절대적인 가치가 존재하지 않음을 느끼게 해야 할 것이다.

102) 윤영보(1994). 전계서, pp.235~239.

그 외에 역할놀이를 통하여 학생들은 그들의 태한 선택의 결과를 탐색함으로써 더 쉽게 인과관계를 볼 수 있으며 역할놀이가 다른 사람의 감정, 태도에 대한 민감성을 발달시켜 주고 학생들의 긴장된 감정을 완화, 순화시켜 주어 학생들의 자아개념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기회로 활용 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이 효에 관해 건전하고 바람직한 개념을 확립하고 이를 행동으로 나타내어 생활해 나가도록 정착시키기 위해 학급 담임교사나 관련 교과교사, 학교장의 효에 관한 훈화 등의 방법도 활용되면 교육 효과가 클 것이다.

끝으로 학교에서의 효 관련 행사를 통한 효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¹⁰³⁾

이러한 효 교육은 최근에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중요한 지도방법이다. 이를 통하여 기본적 예절과 효의 덕목을 익히며 다양하고 현실적인 효의 체험을 가능하게 하여 효에 대한 바른 이해, 실천동기의 강화, 실천 방법의 체득, 자아의 형성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관련 행사에는 효행 특별활동, 수련활동, 명상의 시간, 결연활동, 독서활동, 취미활동, 봉사활동 등을 통한 생활지도 그 외에 학교에서의 경로교실 운영이 있는데 이런 교육활동을 통한 효의 지도는 인간화 교육에 더욱 충실하여야 성취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효는 종적인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전근대적이며 비합리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이것은 따뜻한 인간관계를 이루는 효의 기본기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학교에서는 화목한 가정과 명랑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효교육을 현대생활에 알맞도록 되살리는 교육이 필요하며 어려서부터 꾸준하고 계획성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교교육도 지식위주의 교육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교육목적 달성을 위한 참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자기의 소질을 계발하고 인간답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윤리관을 심어주어야 할 것이다. 특히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에 효 관련 교육시간이 적으므로 모든 교사가 수시 교육을 통하여 지도되

103) 상계서, pp.240~245.

어야 하고 또한 교사도 그를 위해서 부단한 연수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밖에도 야영 및 수련활동, 청소년활동, 종교활동에 참여시켜 바람직한 가치관 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등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3. 사회에서의 효 교육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사회를 떠나서는 잠시도 사회를 떠나서 생활을 해 나갈 수 없으며 또한 상부상조를 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는 반드시 결합 요소가 있어야 인간관계가 성립하고 인간관계가 성립되어야 사회가 이루어진다.

仁義는 인간사회의 기본 결합요소인 바 인은 마음의 덕성이요 사람의 원리이며 의는 마음의 제재요 공경의 원리인데 이것이 있기에 적계는 가정생활, 크계는 국가생활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¹⁰⁴⁾ 따라서 안정된 사회가 계속되려면 효윤리가 바탕이 된 사회의 원초적 집단인 가정과 그 가정을 배경으로 하는 사회교육이 지녀야 할 기본적인 가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가치가 중심이 되어 교육이 이루어질 때 그 사회는 힘이 있는 사회가 되는 것이다.

오늘날 효친의 경시사상이 결국 청소년 교육의 방향을 상실시킨 것이고 그로 인하여 청소년 문제를 비롯한 각종의 사회문제와 인간관계의 파괴가 발생하는 것이다.

고도의 물질문명의 성숙을 가져온 산업사회화는 필연적으로 우리의 전통적 정신문화의 퇴조를 수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전통적인 사회적 신념체제가 互解되어 가고있어 사회적 윤리적으로 아노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¹⁰⁵⁾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은 자칫하면 부모형제 자매뿐만 아니라 이웃과 민족, 국가는 물론이요 인류동포에로서의 사회적 연대감에서 단절되고 고립과 소

104) 尹亮模(1979), 「충효교육」, 한국교육도서, p.242.

105) 백남철(1981), 전계서, p.54.

외감 속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또한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방황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 속에서 일어나는 각종 범죄행위, 청소년비행, 퇴폐풍조, 부도덕, 음주, 음란, 가정파탄, 강도, 약물중독, 자해행위 등은 산업사회의 진전과 더불어 점점 늘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나아가서 세대간의 갈등, 계층간의 위화감, 빈부의 격차, 지역감정 등은 사회 불안요소가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젊은 세대들에게 자신의 존재근원과 참된 존재방식을 되찾아 주고 인류동포애로서 사회적 연대의식을 일깨워 주고 그들에게 소속감과 바른 인생관의 윤리의식을 심어주는 것은 우리 모든 성인의 책임으로서 이것은 우리 민족의 현실적인 요청일뿐더러 현대인류의 공동의 해결과제인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항구적인 평화와 복지현실을 위해서도 절실히 요청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효사상을 위협하는 요인을 찾아내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가정, 학교, 사회의 모든 환경이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의 모든 성인은 스승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사회의 교육적 기능 중에서 중시되어야 할 과제를 살펴보면,

첫째, 사회는 부모대행 교육기능을 하여야 한다.

현대사회의 부모들은 가정보다는 직장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 자식들은 가정생활에서 기초적인 생활기능을 익힐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없으며 부모와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마저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 부모는 돈을 벌어서 오는 사람이나 집에서 잠만 자고 가는 하숙생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적지 않은 문제가정을 낳게 하여 사회의 문제아로 자라게 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사회가 부모로서의 기능을 하여 사랑과 정성으로 바람직한 교육적 내용을 제공한다면 인간다운 가치인 효윤리를 되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둘째, 사회는 계도교육의 기능을 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 사회는 청소년 문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적 이탈을 방지하거나 교정하는 사회교육적 기능을 가져야 한다고 인식은 하고 있으면서도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세우지 못하고 있으며 또 세웠다고 하여도 그대로 실행되거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회교육적 측면을 무시한 결과 거주지와 학교 주변에는 비교육적인 환경이 범람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정서적으로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탈선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인들 스스로가 모든 청소년들을 내 자식처럼 생각하고 선도에 앞장서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정신문화적인 마음의 고향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도해 주어야 한다.

셋째, 사회는 예비성인의 교육기능을 가져야 한다.

우리의 경제는 발전하여 선진국의 문턱에 와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르는 정신문화는 경제성장에 상응하는 성숙하지 못하고 오히려 뒤떨어져 후진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가야 할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존재근원과 참된 삶의 방식을 되찾아 주려는 노력이 부족한데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연대의식을 일깨워 주고 소속감과 바른 윤리의식을 교육하여 바람직한 성인으로 자라나게 하는 일은 모든 사회성인의 책임져야 할 중대한 과제인 것이다.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아실현을 통한 인격의 완성에 있으므로 현대사회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도덕윤리도 효교육의 기초 위에서 배양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바람직한 예비성인으로서의 교육도 사회교육이 담당해야 할 큰 몫인 것이다. 또한 오늘날의 합리적인 효의 가치를 교육함에 있어서 그 의의가 영원하고 무한한 종교적 차원에서 검토되고 음미되어야 하리라고 생각된다.

사회에서의 효 교육의 기능은 가정과 학교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협력해야만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선생님만으로는 효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¹⁰⁶⁾ 학교에서 효의 가르침을 아

106) 윤영보(1994), 전계서, pp.252~254.

무리 잘 받았지만 가정에 가보면 다르고 사회 속에서의 모습은 훨씬 더 다른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 웃어른을 위해 드려야 된다는 것은 모두 동의하면
서도 그 방법이 서로 간에 많이 다르다. 즉 학교, 가정, 사회가 생각하는 효가 각각
다르므로 서로 다른 효의 생각을 모아서 그 방향을 정해야 한다. 전통적인 효윤리
중 현대적 양식으로 바꾸어야 할 것은 그 뜻과 방향을 연구하여 적절한 것으로 제
시해 주어야 한다.

특히 복잡한 현대생활에서 평등한 인권을 존중하는 시민생활이란 입장에서의 효
생활에 대해서도 방향이 밝혀져야 한다. 그래서 일관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지도되어
야 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학부모와의 협력을 통한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효 교육은 한 두
차례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며 몇 사람이 부르짖어 제대로 자리 잡히는
것도 아니다. 또 마음대로 결심을 하고 실천해 가는 중이라도 다시 깨우치고 격려하
여 스스로 되돌아보면서 힘써 나가는 것이 바른 자세라 할 수 있다. 그래서 학생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협력을 반드시 얻어야 한다.

학부모의 협력을 얻는 방법으로는 학부모들을 모아 효의 필요한 방법을 함께 생
각해 보는 일도 있어야 하고 효에 대한 좋은 사례나 정말 본이 되는 경우를 소개하
고 나눠 듣는 기회도 있어야 하며 자기가 지금 실천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반성하
는 기회도 있어야 하고 자녀와 학생들의 효 교육을 공동으로 추진해 가는 계기도
만들 수 있다.

효에 대하여 학부모와 협의를 하고 계몽을 하며 스스로 반성하는 것은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한 절대적인 요청이며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
다. 이렇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학부모 교양강좌와 상담 활동, 가정통신문 등을 통
한 효 실천 홍보, 부모와 함께하는 생활본, 웃어른께 봉사하기, 이웃과 함께하는 경
로장치 등이 있는데 이런 활동에 부모는 자녀와 함께 참여한다면 매우 바람직한 효
경험의 제공과 실천을 위한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끝으로 효 교육을 위해서 인성교육 차원에서 학생들을 효의 실제 생활에서 참여시켜 지도해 나가야 한다.¹⁰⁷⁾ 효 교육을 위해서는 학생들이 실제 생활하는 동안에 웃어른을 위하고 도와 드리며 기쁘게 해드리는 마음가짐과 행동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도록 이끌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실제로 참여하는 방안을 늘 연구하고 실천되도록 지도하는데 그 기회가 비교적 많은 것들이 있다. 가령 버스에서 자리 내드리기, 노인 부축해 드리기, 웃어른께 바른 인사하기, 경로당, 양로원 방문하기, 웃어른과 함께 지내기, 효행 체험하기, 마을 경로잔치 참여하기 등이 있는데 이런 활동을 통해서 웃어른을 공경하고 효를 실천하는 마음과 태도를 더욱 높힐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효 교육의 실제 행동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분야가 사회이다. 청소년들이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 여러 가지 유혹에 이끌리기 쉬운데 이러한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보낼 수 있는 시설, 장소, 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조성하고 마련해 줌으로써 청소년들의 비행화를 예방하는 것도 사회교육의 한 몫이고 비행 청소년을 발견하면 현장지도할 수 있는 어른들의 용기와 모범을 보이는 본보기가 생활화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가정, 학교, 사회에서의 효교육과 실천과제에 대해 고찰해 보았지만 효교육 부재가 시대적 변화에 따른 문제라고 간과해 버려서는 인간을 바로 세우고 복지사회를 구축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107) 상계서, pp.271~278.

V. 결 론

본 연구는 현대 한국사회의 제반 도덕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청소년들의 효윤리를 생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제 하에 효윤리의 현대적 실천을 위하여 그것이 현대적 의의를 도출하고 또 그 실천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요인들을 찾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가정·학교·사회에서의 바람직한 교육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효란 자식이 나이 드신 부모를 받들어 모시는 것으로 이는 낳고 길러주어 나의 존재를 가능하게 한 부모에 대한 감사와 보은에서 비롯된 것이다.

전통적인 개념의 효윤리는 부모와 자식간에 가정윤리의 근본으로 형성된 원초적인 상호관계를 유지 발전하기 위하여 규율하는 일종의 질서로 작용한다. 이 의미가 확대되어 윗사람을 섬기는 질서의 원리인 경로사상과 나라를 다스리는 애민사상, 그리고 국가생활의 원리인 충의 윤리를 지탱하는 의미로 발전되었다.

효윤리의 본질적 내용은 부모에 대한 공경과 봉사이다. 이는 정신적, 물질적인 것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이를 행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 시작은 부모로부터 받은 신체를 보전하여 부모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것이다. 다음으로 순종하는 효, 봉양의 효, 공경의 효, 간언의 효, 양지의 효, 시봉의 효, 상례와 제례의 효가 있으며 마지막은 양친의 효, 즉 입신양명하여 사회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부모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이다.

지난날 선조들이 실천해 온 효윤리는 현대사회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자식의 존재 근거로서의 부모와 그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변함이 없다. 또한 그 기능과 역할이 변함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중요성은 오히려 강조되고 있다. 자식의 부모에 대한 바람직한 관계에 토대를 두는 가정생활의 윤리로서 효윤리는 사회적으로도 의의를 갖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효윤리가 더욱 큰 의의를 가지려면 현대적 효의 윤리는 첫째로는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가족끼리 서로 이해하고 보편적인 측면에서 정립되어야 하고, 둘째로는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생활화된 효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셋째로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도적이고 교육적인 모범에 의해 정립되는 것이어야 하며 하는 일이며 넷째로는 부모의 교육적인 자세가 확립되어야 한다. 다섯째로는 현대의 효는 타율적이 아닌 자율적인 것이라야 한다.

현대사회에서 효윤리의 실천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문제들을 살펴보면 첫째로 사회적 요인에 의한 것이다. 현대사회에서는 다양각색의 사회적, 윤리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중심가치의 결여, 집단사이의 갈등, 문화지체, 규범이 상실, 가족기능의 약화, 공허감 등으로 집약할 수 있다.

둘째로 현대 청소년들의 윤리와 전통적 효윤리와의 갈등에 의한 것인데 청소년들의 사고 경향으로는 평등주의, 개인주의, 그리고 예의 무시주의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사회·가정·학교의 체 여건 하에서 자라난 청소년들에게 또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 요소가 일탈행동이나 예의 무관심적 행동성향을 보이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셋째로는 청소년들이 효에 대한 의식상의 문제이다. 현대 청소년들에게 나타난 효의식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보면 부모님의 낡아주시고 길러 주심에 대하여 매우 감사하게 생각은 하고 있으나 산업화된 도시사회와 물질을 중시하는 사회적 주위환경의 영향으로 점차 퇴색되어 가고 있다. 또한 경제적인 문제로 자신의 희생이 따르더라도 부모를 잘 봉양하여야 한다는 의식이 높으나 핵가족화의 영향으로 자기 희생을 피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으려는 진보적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생전의 부모의 뜻과 가르침을 잘 실천하거나 유지를 따른다는 의식은 가지고 있으나 부모의 유지를 무조건 따르려는 생각이 많이 퇴색되었고 자기 자신을 가치판단의 중심에 두려고 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대적 의의와 실천상의 제 문제점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 가정·학교·사회가 연계되어 현대적 효의식 제고와 함께 바람직한 효윤리의 실천을 위한

교육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 방안으로 먼저 가정에서는 전통적인 효윤리의 실천을 강요하기보다는 현대적이고 합리적인 효윤리를 정립하여 실천하도록 하며 부모가 제반 가정 여건을 조성하여 자녀들과 항상 대화하고 접촉하면서 참사랑으로 대하고 솔선수범하여 본보기를 보여줌으로써 효윤리에 대한 교육이 부단히 이루어지고 또한 그 실천에 있어서도 효과도 거둘 수 있다.

또한 가정에서는 화목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자식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고 부모 스스로 효생활을 솔선함으로써 자식들이 따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자녀들과 대화하고 참사랑으로 대할 때 자식들의 올바른 마음가짐과 행동이 생활화될 것이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지식위주의 교육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교육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참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자기의 소질을 계발하고 인간답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윤리관을 심어주어야 할 것이다. 특히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에 효 관련 교육시간이 적으므로 모든 교사가 수시 교육을 통하여 지도되어야 하고 또한 교사도 그를 위해서 부단한 연수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밖에도 야영 및 수련활동, 청소년활동, 종교활동에 참여시켜 바람직한 가치관 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등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학교에서는 지식 위주의 교육에서 과감히 탈피하고 인성교육을 강화하여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자질과 소양을 길러주는 교육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그래서 강압이나 명령에 의해서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人道와 정의에서 우러나오는 道義之氣를 형성함으로써 위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인간으로 자라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한편 효 교육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분야가 사회현장이다. 청소년들이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 여러 가지 유혹에 이끌리기 쉬운데 이러한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보낼 수 있는 시설, 장소, 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조성하고 마련해 줌으로써 청소년들의 비행화를 예방하는 것도 사회교육의 한 몫이고 비행 청소년을 발견하면 현장지도할 수 있는 어른들의 용기와 모범을 보이는 본보기가 생활화되어야 한다.

사회에서는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비행화를 예방하는데 힘써야 한다. 비행행위를 하는 청소년들을 지도할 수 있는 어른들의 용기와 솔선수범이 생활화가 되어야 하며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여 청소년들을 순화시키는 교육의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또한 청소년 주변 환경을 정화하고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영상매체에서도 가정, 사회윤리를 저해하는 내용을 방영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와 주의가 촉구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이유는 효 교육은 단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가정·학교·사회를 통해서 계속 부단히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효윤리의 현대적 실천을 위한 교육방안에 대한 결론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현대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효윤리의 불감증을 시대적 변천에 따른 문제라고 간과해 버려서는 인륜을 바로 세우고 복지사회를 구현할 수 없다. 효의 실행 주체는 청소년이지만 그것을 제대로 실천하느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부모와 교사이므로 부모와 교사는 모범적인 행동과 솔선수범으로 청소년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둘째, 현대사회에서 전통적인 효윤리를 요구하는 것은 민주교육, 평등교육을 받는 청소년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으므로 현대에는 부모에 대한 은공에 보답하고 자신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며 가족사이에 화목하고 부모의 소망에 부응할 줄 알고 심려를 끼쳐 드리지 않는 것이 효도라고 그 개념을 정립하여 실천을 위한 계속적인 효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현대사회에서의 효는 전통적인 사상에 기초하여 현대사회 감각에 알맞도록 조정되어야 하겠으며 이때 사랑과 존경, 봉사와 헌신을 근간으로 하는 부자공감의 상호관계가 중요시되어야 한다.

넷째, 현대사회에서의 효 교육은 가정, 학교, 사회가 상호 협동적으로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전통적 윤리로서의 효윤리를 현대적 감각에 알맞게 적용시켜야 한다.

다섯째, 사회질서가 문란한 현대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효 교육이 선행

되어야 한다. 효 교육이 소홀해지고 지식 위주의 교육에만 치중한 결과 인간성의 상실, 자기소외, 공허감, 자주의식의 결여 등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성 회복 운동과 교육이 절실히 요청된다.



參 考 文 獻

〈단행본〉

- 고영복(1983), 「현대사회와 노인복지」, 아산사회복지재단.
- 국민윤리편집위원회(1982), 「신국민윤리」, 대왕사.
- 국무총리기획조정실(1981), 「청소년백서」.
- 권상노(1961), 「고사성어 사전」, 학원사.
- 교육부(1998),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Ⅲ)」, 서울특별시인쇄공업조합.
- 김경동(1980), 「현대사회와 인간의 미래」, 평민사.
- 김기열(1977), 「충효사상의 연구」, 문종서관.
- 김대환(1987), 「사회의 학교화」,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 김선양(1985), 「경로효친교육」,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 김성원 역(1994), 「격몽요결」, 명문당.
- 김유혁(1989), 「전통윤리와 현대사회」, 청담서림.
- _____ (1997), “효의 본질” 「충효사상」, 단국대출판부.
- 김익수(1980), 「한국 충효사상과 국민정신교육」, 성균관출판사.
- _____ (1983), 「효경대의」, 수덕문화사.
- 김학주 역(1986), 「충경·효경」, 명문당.
- 백남철(1981), 「충효의 실상」, 우성출판사.
- 서성옥 외(1985), 「경로·효친지도 자료집」, 대한교육연합회.
- 성백효(1993), 「論語集註」, 전통문화연구회.
- 손인수(1991), 「한국교육의 현재적 진단」, 배영사.
- _____ (1992), 「한국인의 가치관」, 문음사.
- _____ (1992), 「한국인의 도와 미풍양속」, 문음사.

- 안창범(1986), “경로효친과 학교교육” 「주임강좌」, 한국교육생산성연구소.
- 윤성범(1965), 「종교와 효도」, 을유문화사.
- 윤양모(1979), 「충효교육」, 한국교육도서.
- 윤영보(1994), 「경로효친교육」, 교육주보사출판부.
- 윤팔중(1985), “가정에서의 경로효친교육” 「경로효친 교육」.
- 이가원 역(1988), 「논어」, 흥신문화사.
- 이규호(1978), 「충과 효를 위한 교육」,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 _____ (1983), 「국민윤리 교육의 이론과 실제」, 문우사.
- 이수윤(1992), 「서양철학사」, 법문사.
- 정범모(1991), 「한국교육의 진단과 전망」, 도서출판나남.
- 정세구 역(1985), 「현대정치 이데올로기」, 교육과학사.
- 장진호(1976), 「교육과 사회」, 실학사.
- 제주도교육위원회(1988), 「삶의 원리와 도덕교육」, 대광문화사
- 제주도교육청(1997), 「교육제주, 겨울호」, 일신옵셋인쇄사.
- 최근덕(1978), 「유학강의」, 성균관출판사.
-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1),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사전」, 웅진출판주식회사.
- _____ (1989), 「전통윤리의 현대적 조명」, 천풍인쇄주식회사.
- 한기언(1981), 「효도와 교육」, 을유문화사.
- 황병국 역(1990), 「효경」, 혜원출판사.
- 황하택(1984), 「삶과 사랑과 한국인」, 종로서적.

〈논 문〉

- 강석봉(1994), “전통적 효요소에 의한 효의식 조사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 고인호(1997), “제주도초등학생의 효의식에 대한 조사연구”, 석사학위 논문, 제주대

학교 교육대학원.

김규오(1984), “가정윤리 근본으로서 효교육”,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김영민(1985), “청소년 윤리교육과 충효사상”,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박홍수(1984), “한국인의 의식구조와 가치지향에 관한 조사”, 조선일보.

손상규(2000), “효 가치와 교육적 실천과제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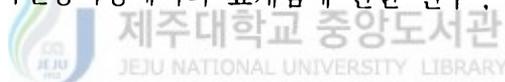
신정남(1983), “전통적 효사상의 조명”,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안봉희(1996), “효도사상과 교육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안창범(1978), “한국 충효사상의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안태원(1993), “효경과 부모은중경에 나타난 효사상 비교”,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오세정(1997), “한국전통사상에서의 효개념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산효도대학원대.



이영노(1991), “전통적 효사상의 현대적 의의와 실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이영희(1994), “초등학교 민주시민 의식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이한분(2000), “가정에서의 효 실천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산효도대학원대.

최순호(1996), “국민학교학생의 효의식에 대한 조사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Abstract>

**A Study on Education of Filial Ethics Practice in Modern Sense
- Centering on the Primary School Children -**

Han, Seob

National Ethics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Ahn, Chang-Beom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iscuss the problems with students' consciousness and practice of filial ethics and the ways for home, school and society to jointly teach them to put it in practice in modern sense.

Modern filial ethics should be established, based on natural mutual understanding of family members, to be universally acceptable. That should be internalized and put in practice in daily living, and parents should have an intentional and instructive attitude toward childcare as a role model. And autonomy should be stressed, instead of heteronomy.

The ways to teach students filial ethics were discussed on family, school and social levels: at home, modernistic and rational filial ethics should be built up, instead of forcing students to fulfill traditional filial ethics, and parents should create a good family setting to instruct filial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1.

ethics on a constant basis, by having a ceaseless conversation with children, treating them with true love and giving an example as a role model. Second, school should avoid knowledge-centered education, offer true education to attain the goal of education, and inspire a proper view of ethics in students to help them develop their own ability and lead a manly social life. As school curriculum doesn't deal with filial piety sufficiently, every teacher should be properly instructed first, and they should train themselves regarding it. In addition, sustained education efforts should be taken by encouraging students to participate in camping, training, adolescent activities or religious activities to have the right values, and diverse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Third, there should be good places across the society for adolescents to spend time in sound manner, and multiple programs should be prepared to prevent juvenile delinquency, and adults should set good examples as a strong role model.

The following conclusion was made in this study about the educational method to put filial ethics in practice in modern sense:

First, though adolescents are the subject who implements filial piety, parents and teacher determine whether they carry it out properly or not. Parents and teacher should behave in the right manner as a good role model.

Second, adolescent should learn the concept of filial piety, and continuously be educated to carry it out.

Third, in modern society, filial piety should be regulated to suit modern sense based on the traditional thoughts.

Fourth, filial education should be conducted on a long-term basis through cooperation among home, school and society.

Fifth, filial education has to be given to establish order as modern society severely lacks proper social order.